

2024 공동 학술회의

디지털시대 이주민의 공동체와 건강

2024. 5. 10

- 일 시 : 2024년 5월 10일(금), 14시~18시
-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28호
- 주 최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 후 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13:30~ 14:00	등 록
14:00~ 14:10	개회사 : 신지원교수(전남대학교) 축 사 : 황혜성단장(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제1회의 : 디지털시대 이주민의 공동체 / 사회 : 신영헌 (한성대)	
14:10~ 14:40	발표1 권은혜(한성대학교), 디지털 친족관계: 인터넷과 한국인 입양인 공동체의 형성 토론 신지혜(전남대학교)
14:40~ 15:10	발표2 김지윤(한성대학교),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자원의 활용: 서울 내 이주민 사례 토론 임영언(조선대학교)
15:10~ 15:40	발표3 김혜련(한성대학교), 심양(沈陽) 서탑(西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연구 토론 선봉규(전남대학교)
15:40~ 16:00	휴 식
제2회의 : 디지털시대 이주민의 건강 / 사회 : 이효철 (호남대)	
16:00~ 16:30	발표4 연미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이주민 적용 방안 모색 토론 김나경(전남대학교)
16:30~ 17:00	발표5 송지영·정종민(전남대학교),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재외한인의 건강 경험과 초국적 모빌리티 토론 이승연(한양대학교)
17:00~ 17:30	발표6 김일환(나주시 봉황가정의학과의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주민 무료진료기관의 비대면 의료활동: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례 토론 윤덕현(광주근로자건강센터)
17:30~ 17:50	종합토론
17:50~ 18:00	폐회사

디지털시대 이주민의 공동체

디지털 친족관계: 인터넷과 한국인 입양인 공동체의 형성

권은혜 전임연구원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디지털 친족관계: 인터넷과 한국인 입양인 공동체의 형성

권은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들어가며

한국전 발발 이래로 현재까지 대략 13만 명의 한국인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이들은 현재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¹⁾ 한국인 입양인의 초국적 입양 경험은 1980년대 말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한국인 입양인의 신속한 네트워킹과 단체 결성을 가능하게 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결성된 주요 한국인 입양인 단체들은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²⁾ 대표적 한국인 입양인 단체 중 하나인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GOAL)는 1998년에 한국에 돌아온 입양인 12명이 창립했고 입양인의 친생가족 찾기, 입양인의 이중국적 인정캠페인, 그리고 한국의 학계 및 사회단체와 입양인 사이의 연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인입양인국제연합(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은 1999년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의 한국인 성인 입양인 모임으로 시작했다. 한국인 입양인국제연합은 성인이 된 한국인 입양인이 모이는 국제행사와 문화축제를 서울, 미국 및 유럽의 대도시에서 개최하며 “한국인 입양인의 지구적 공동체를 연결·지지·옹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³⁾

21세기 들어서 시작된 웹2.0의 시대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사용자와 상호소통이 가능해 졌고 한국인 입양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와 각종 블로그 사이트에서 입양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공유한다. 온라인 상에서 한국인 입양인들은 서로를 “KAD (Korean Adoptee)”로 호명하며 온라인 공동체 모임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가 가진 공개적 성격은 한국인 입양인 온라인 공동체를 관심을 가진 외부인에게 노출시킨다. 한국인 입양인 온라인 공동체는 초국적 입양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 정치·경제·문화적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들의 시각을 세계의 인터넷 대중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최근 십여 년 간 한국인 입양인의 온라인 활동은 한국인 입양인의 자기 정체성 인식 및 이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자의 주목을 끌었다. 인류학자 일리아나 김은 2010년 저서에서 지역적으로 산발적 모임을 가지던 한국인 입양인들이 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지역의 입양인들과 연결되면서 스스로를 지구적 한인 디아스포라

1) Kimberly McKee, “Claiming Ourselves as ‘Korean’: Accounting for Adoptees within the Korean Diaspora in the United States,” in *Click and Kin: Transnational Identity and Quick Media*, Edited by May Friedman and Silvia Schultermantl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6), 159.

2) <https://goal.or.kr/history/> [2024년 2월 10일 검색].

3) <https://www.ikaa.org/who-we-are/mission-vision-values/> [2024년 2월 10일 검색]

의 일부로 상상하는 과정을 추적한다.⁴⁾ 1990년 말에 인터넷 상으로 한국인 입양인이 모이는 공간은 the Korean Worldwide Network과 같은 전자메일리스트였다.⁵⁾ 한국인 입양인이 모인 전자메일리스트 서브는 한국인입양인 연간 국제회의 및 기타 지역 소모임, 그리고 한국방문여행 등 실제 모임으로 이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한국인 입양인 및 가족이 사용자로 정보 및 콘텐츠를 창출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김호수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다음카페의 입양인 친생모임에 올랐던 글을, 여성학자 김벌리 맥키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IAmKoreanAmerican.com에 신상파일을 공개한 한국인 입양인들의 자기소개를 분석했다.⁶⁾

인터넷이 관계와 의사소통의 형식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기 전에 나온 초국적 입양 연구들은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입양기구와 입양전문기관과 전문가, 한국 및 미국정부, 입양부모의 시각에서 초국적 입양을 정당화하는 배경과 담론을 분석하고 이 담론 속에서 입양인 주체가 구축되는 방식을 분석했다.⁷⁾ 인터넷의 시대는 입양인 정체성과 조직화 연구의 새 국면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입양인들은 인터넷 상의 다양한 온라인 그룹과 블로그에 스스로를 입양인이라고 부르며 입양 경험과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들이 남긴 온라인 상 기록과 이에 대한 다른 입양인 혹은 비입양인의 다양한 반응은 입양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해되는 복합적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인 입양인의 디지털 친족관계(digital kinship)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 상에서 한국인 입양인들은 “페이스북 그룹, 온라인 출판물, 아시아계 미국인에 초점을 둔 웹2.0 미디어”에서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한국인 입양인들의 친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한국인 입양인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거나 차이를 보이는가?

입양 배경과 경험은 다양하지만 모든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은 초국적이며 인종 간 입양으로 형성된 비규범적 가족 형태를 통과한다. 이들은 두 개의 가족-한국의 친생가족과 미국의 입양가족, 두 개의 국가-출생국가와 입양국가-공동체에 속하면서 완전히 속하지도 않는 존재이다. 초국적 입양은 친생가족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혈족이 없는 “고아”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노르웨이의 인류학자 시그니 하우웰은 이를 “혈족 지우기

4) Eleana J. Kim,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104-120.

5) <https://koreanadopteesworldwide.net/mission-and-vision/>

6) Hosu Kim, *Birth Mothers and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in South Korea: Virtual Motheri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McKee, “Claiming Ourselves as ‘Korean’.”

7) Signe Howell,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Berghan Books, 2006); Sara K. Dorow,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de-kinning)”라고 표현한다.⁸⁾ 입양된 시점 이후로 한국인 입양인은 한국의 친생가족, 한국 국가공동체에서 속하지 않는다. 비록 1998년 이후로 한국정부는 해외 입양인에게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하며 이들을 한국과 입양국가를 잇는 문화대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많은 입양인들이 그들을 사실상 버린 한국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 귀환해서도 즉각적인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은 대개 미국 중산층 백인 가정과 사실상 분리된 백인 공동체에서 양육되면서 아시아인의 외양과 백인의 생활방식 사이의 긴장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비록 다문화사회의 에티켓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반 아시아 인종주의로 인해 백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면화한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은 스스로를 “백인 한국인 (White Koreans)”이라 부르며 한국계 미국인 집단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으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⁹⁾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은 원치 않았지만 한국의 가족과 국가에서 제거된 비자발적 이민자, 난민, 혹은 망명자다. 일리아나 김에 따르면, 혈연으로 형성되는 규범적 친족관계로부터 제거되고 공식적인 이민과 디아스포라의 인간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국인 입양인의 공통적 경험을 구성하며 이들을 “결속”시킨다. “진짜 혹은 상상된 한국과 한국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비동일시와 전치, 상실감, 비자발적 망명자, [해외입양을] 사실 혹은 좋은 운으로 받아들이기 등의 경험은 분리된 개인들을 한국인 입양인이라는 공유된 정체성 확인 과정으로 결속시킨다.”¹⁰⁾

일리아나 김은 초국적이고 인종간 입양을 통해 형성된 “비규범적 가족형태의 경험”이 입양인 결속의 토대가 된다고 보며 이들의 결속 형태를 친족관계에 비유해 “입양인 친족관계(kinship)”이라고 부른다. 친족관계가 본래 혈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입양인 친족관계는 그저 문법적 비유에 그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김에 따르면, 초국적이고 인종 간 입양으로 형성된 “비규범적 가족 형태”의 경험은 입양인을 위한 “대안적 인격(personhood)의 형식들” 및 입양인들 사이에 형성되는 친족관계의 토대가 된다. 동시에 입양인 친족관계는 혈연으로 구성되는 정상적 가족과 거기에서 출현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가족과 정체성의 규범적 개념화를 낮설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입양인 친족관계는 이성애적 가족과 정체성의 규범에 도전하는 “게이와 레즈비언 친족관계(gay and lesbian kinship)”와 유사하다고 김은 지적한다.¹¹⁾

입양인 친족관계는 개별 입양인이 초국적 입양의 과거와 현실의 결과를 대면하고 스스로 입양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입양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때 성립된다. 인터넷 시대는 미국 전역에서 흩어져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민하던 한국인 입양인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그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미국 백인 가정의 입양자녀가 되었는지를 빨리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다.

8) Howell, *The Kinning of Foreigners*, 9.

9) Kim Park Nelson, *Invisible Asians: Korean American Adoptees, Asian American Experiences, and Racial Exceptionalism*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6), 121.

10) Kim, *Adopted Territory*, 98.

11) *Ibid.*, 100.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형성된 한국인 입양인의 친족관계는 “디지털 친족관계(digital kinship)”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디지털학, 미디어학, 아프리카계 미국인학 연구자 애슐리 웨이드는 디지털 친족관계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족적 유대-본래 가족과 선택된 가족을 모두 포함해-가 확립되고 유지되는 관계적 실행”으로 정의한다.¹²⁾ 웨이드의 분석대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고생들이 형성하는 디지털 친족관계이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프라인 공간과 비교해 온라인 공간에서 이들 여고생들이 더 견고한 지지와 옹호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지이다. 일리아나 김이 말하는 한국인 입양인 친족관계는 반드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 역시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고 지역적이던 집단들을 개인과 집단의 자의식적 네트워크로 변모시켰고 한국인 입양인의 인격(personhood)의 생산과 수행을 위한 가상 공간을 제공”했음을 인정한다.¹³⁾

이하의 절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의 디지털 친족관계의 구체적 사례로서 IAmKoreanAmerican.com의 입양인 프로필을 분석한 맥키의 연구와 결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의 블로그, “OhmMG...: Inner Peace v. Outer World-A Korean Adoptee Blog”와 “The Ninth Voice”의 저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친생모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고유한 언어로 분절하는 방식을 검토한다.¹⁴⁾

디지털 공간에서 한국인 입양인의 한국인성 수행하기

12) Ashleigh Wade, “When Social Media Yields More than “Likes”: Black Girls’ Digital Kinship Formations,” *Women, Gender, and Families of Color* 7:1 (Spring 2019), 80-97.

13) Kim, *Adopted Territory*, 104.

14) McKee, “Claiming Ourselves as ‘Korean’.” <https://ohmmg.wordpress.com/about-2/>
<https://theninthvoice.wordpress.com/about/>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자원의 활용:
서울 내 이주민 사례

김지윤 전임연구원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자원의 활용: 서울 내 이주민 사례

김지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I. 들어가는 글

“자바(Java)에서와 마찬가지로 버마(Burma)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유럽인, 중국인, 인도인, 원주민 등 다양한 그룹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뒤섞여 있지만 긴밀히 연합되지 않은 메들리(medley)와 같다. 각 그룹은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 사상, 그리고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들이 서로 만나는 곳은 오로지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고 팔 때이다.” (Morris, 1967: 170).

아시아 식민지에 대한 연구에서 영국 태생의 식민지 관리인이자 작가였 퍼니발(Furnivall, J. S.)(1942)은 당시 자바나 버마와 같은 식민 도시에서 다양한 인종 혹은 민족들(ethnic groups)이 절대 통합되지 않고 각 민족마다 나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는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 통합된 구조가 적용되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결코 통합되지 않던 이런 사회를 퍼니발은 “다원주의 사회(a plural society)”로 명명하였다. 퍼니발의 다원주의 사회 개념은 이후 사회학자들로부터 과학적인 모델이나 개념으로서는 부족하다며 비판받았다(Morris 1967).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분화되어 있던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민족들이 조우하던 공간인 시장(market)이었다. 서로 무언가를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교환할 것이 있을 때, 서로에게 타자인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낯선 곳에서 타자의 문화나 역사를 배우는 ‘고귀한’ 목적으로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이미 과거가 된 죽어 있는 타자들의 문화를 구경하기를 반복하다 지쳐 이윽고 붐비는 거리와 시장으로 탈출한다(Gregory 2003). 거리와 시장에는 동시대성을 공유하고 있는 나와 유사성을 가진 혹은 차이를 가진 타자들이 살아 움직인다. 시장에서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것은 타자의 문화에 매혹되고 이를 흡수한다는 것과 같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이제 도시에서 낯선 이방인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이러한 도시는 타자들 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재화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지적하였다(2010). 이제 사람들은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매일 수행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타자와의 뒤섞임에 대한 공포인 이질공포증(mixophobia)으로 “유사성의 공동체(a community of similarity)”를 추구함으로써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물러나 후퇴한다. 이로 인한 공간적 분리는 서로에

대한 무지함과 공포를 키울 뿐이다(Bauman 2007: 141). 바우만은 그러나 도시의 양가성이란 도시가 제공하는 타자성이라는 것이 혐오감과 공포증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의 매력과 호기심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질애착증(mixphilia)를 유발하기도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질애착증의 대상은 생소한 타자의 음식, 향기, 음악, 건축 등의 감각적인 경험들일 것이다. 바우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적인 분리가 서로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매혹적인 열린 상호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시장이 바로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타자성이 교환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장이자 노동력, 문화적 자원, 정보, 자본과 임금이 교환되는 장으로서 유무형의 시장을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로 정의하며 에스닉 경제의 다양한 경관들(-scapes)¹⁵⁾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양한 에스닉 그룹이 임시 또는 영구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경제 주체로 부상하면서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가 도시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에스닉 경제와 긴밀히 접목되면서 그 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증가가 질적으로 어떻게 에스닉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주목하기 위해 에스닉 경제의 민족경관과 기술경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로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이 직접 창업하거나 이주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에스닉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수민족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몇몇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소규모 에스닉 사업가들이 번성했고, 일부 성공한 요식업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공간적으로 확장하면서 주류 경제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외국인의 사업자 등록에 대한 복잡한 절차적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한국 국적의 파트너와 공동 경영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 에스닉 경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에스닉 경제는 이민자의 문화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한적이고 경직된 자국민 중심의 정책들은 이민자가 사업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도 이주민들의 이주 역사가 30여년에 이르고 에스닉 경제의 주요 주체이자 참여자인 이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스닉 경제는 이주민만의 시장이 아닌 한국 사회의 다원주의 혹은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에서 실현되고 교환되는 장이 되어 가고 있다.

II. 에스닉 경제에 대한 이해와 쟁점

주류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으로 소수인 이주자가 소유 혹은 경영하고 주로 같은 에스닉 구성원을 고용, 이들의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그리고/혹은 에스닉 집거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이를 에스닉 비즈니스(ethnic

15)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에 주목한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1997)는 세계화의 다섯 가지 측면에 각각 주목하게 하는 경관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족경관(ethnoscapes), 기술경관(technoscapes), 미디어경관(mediascapes), 금융경관(financescapes), 이데올로기경관(ideoscapes)으로 구분되어 세계화라는 것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섯 가지 경관들 사이에 분절적 관계를 갖고 있기에 각각의 차원을 구분하되 그 복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businesses)라고 하며, 그 에스닉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이를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라고 한다(Pécoud 2000; Light 2004). 에스닉 비즈니스는 주로 에스닉 그룹에 기반한 소규모 비즈니스 활동으로서 초국적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 활동은 제외한다(Li, 1993).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 내적 구분에 주목하여, 주류 사회의 엘리트 계층과 대중에게 에스닉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소수 중개자(middleman minorities)”와 자신이 속하는 에스닉 공동체에 공간적으로 한정된 곳에서 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에스닉 집적지 기업가(enclave entrepreneurs)”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산개념으로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Zhou 2004: 1041)를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할 것이다. 에스닉 경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류 사회에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수동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용 창출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스닉 기업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한 수의 피고용인의 노동 현장과 그들의 주체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자리만 옮긴 또 다른 이주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경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주류 사회와 에스닉 그룹 간의 관계, 초국적 이동과 로컬에서의 공동체 관계를 역동적으로 보려 한다.

초기의 에스닉 경제 연구는 특정 에스닉 집적지에서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었다. 공간적으로 특정 에스닉 공동체에 한정된 소규모의 잡화점이나 음식점은 고용 구조도 특정 에스닉 그룹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이 내적 네트워크에서만 관찰되는 특정 연대감, 신뢰, 가치관, 규범 등을 문화적 특수성으로 규정하며 분석하려 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에스닉 경제에 주목하는 지점은 에스닉 경제가 수용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다. 에스닉 기업가들이 이주민들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 그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들의 가족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망은 어떻게 자원화되는지, 왜 특정 에스닉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에스닉 경제에 대한 참여율이나 성공률이 높은지 등이다(Kaplan and Li 2006).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주자들이 에스닉 경제에 진입하는 이유는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스로의 고용창출(self-employment)이다. 대개 이주민은 비숙련 혹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자국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수용국 사회의 인종적 배제나 차별, 언어 장벽, 자국민 고용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특히 에스닉 집거지(enclaves)에 기반한 에스닉 사업체들을 일종의 “트랩(traps)”으로 본다. 소수자인 이주민의 주류 사회로의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를 제한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직종별로 종속적인 지위에 이주민들을 묶어 두게 된다는 것이다(Borjas 1986; Bates 1989). 유럽에서도 이주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와 배제가 이주민들의 소자본 창업에 이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장은 노동집약적이고, 대개 소수의 이주민 시장을 두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므로 에스닉 경제로의 진입 자체가 사회적 배제의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Samers, 1998).

그러나 동시에 이주민의 창업 추세는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임금을 받던 이주 노동자들이 대개 창업을 할 경우 대체로 이전보다 높은 수익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Rischin 1962; Goldscheider 1986; Portes and Zhou 1996). 물론 그 이면에는 주로 가족이나 동일한 에스닉 그룹에 제한된 피고용인을 장시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착취적 구조가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에스닉 경제의 일방적 측면보다는 주류 사회와 에스닉 그룹간의 중간 매개자와 같은 일종의 “회전문(revolving doors)”(Hillmann 2006: 101)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즉 에스닉 경제가 특정 에스닉 그룹이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를 오가게 하는 통로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에스닉 경제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훈련 과정 없이 바로 저임금이더라도 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들에게는 일을 배우면서 임금을 받는 비공식적 훈련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어떤 이는 주류 사회로의 진입없이 비숙련 노동자로서 이 트랩에 갇힐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에서의 경력을 통해 잠재적인 비즈니스 창업가가 되거나 더 나은 교육이나 취업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에스닉 경제는 초국가적 경계를 넘어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에서 상품, 노동력, 자본을 교환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Landolt, Autler, and Baires 1999; Saxenian 1999; Guarnizo 2003; Lee and Zhou 2015). 초국가적 이동성(transnational mobility)과 창업 정신이 결합된 이주자들은 글로벌 흐름에 순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경계를 넘으며 다수의 사회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읽어내고 변화하는 국제 시장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협상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탐색하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고전적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방식의 자원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에서 위기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에스닉 경제에서 이주민 기업가가 주목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모델 이주자로 재현하고 문화적, 경제적 동화의 성공사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Aldrich and Waldinger 1990). 그러나 소수의 에스닉 기업가의 성공 자체가 에스닉 경제의 대표성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대개 에스닉 기업가들의 출발은 주류 사회의 고용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배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되어 온, 스케일 자체가 제한적인, 혹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수요의 시장에 진입하는 약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ibid.: 112).

이러한 에스닉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류 사회의 관점에서 혹은 각 개별 에스닉 그룹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창업 추세가 주류 사회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각 에스닉 그룹의 창업 활동 자체를 민족별 고유한 정체성과 연계시켜 본원적 가치로 환원하고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 내 라틴계 에스닉 기업가에 대한 분석에서 줄레마 발데즈(Zulema Valdez)는 단지 민족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계급, 젠더, 인종, 개인별 교육 수준과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작용하므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고려를 강조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위치지어진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백인우월주의라는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계급, 젠더, 인종, 에스닉 그룹 간의 위계 관계에 영향을 주어 각 교차 그룹의 사회적 지위가 더 큰 맥락 내에서의 불평등한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Valdez 2011: 156).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에스닉”과 “비-에스닉(non-ethnic)”간의 구분을 강화하고 각 에스닉 그룹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에스닉 경제 연구는 에스닉 정체성을 고착시킴으로써 점점 초국가적 이동성을 지니며 혼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에스닉 경제의 역학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Pécoud, 2000: 458).

특히 다른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미등록 이주민, 계절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초국가적 이동을 보여주는 개인들도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요소들도 점점 에스닉 경제의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령 동일한 에스닉 그룹의 사회적 연결망에만 의존하여 고용이 이루어진다가나 동일 에스닉 그룹의 집거지를 중심으로 하던 에스닉 비즈니스들은 점점 디지털 기술과 접촉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그 정의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이제 초국적 이동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개인들은 더 이상 지리적 근접성이나 고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가령 영국 런던처럼 전 세계에서 이주자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건설, 기술, 헬스 분야에서는 이주 전 이미 선발과 고용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미 이주 노동자의 수가 원주민을 압도하는 헬스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주류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동일 에스닉 그룹의 자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한다(Batnitzky and McDowell, 2013).

III. 에스닉 경제의 경관 너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리적 위협이 사라지고 동시에 국가간 이동을 가속화하는 교통, 통신의 기술 발전은 이주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미국에서는 1965년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의 가속화된 유입이 수용국 사회의 질적 변화로도 이어지는데 도시의 슬럼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에스닉 집적지(enclave)에는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자본의 작은 잡화점, 식당 등이 등장하고 주류 사회가 알아보기 어려운 언어로 된 간판과 에스닉 그룹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경관은 글로벌 도시의 모퉁이에서 접하게 되는 하위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에서는 이태원과 같은 외국인 집적지가 어떤 특정 에스닉 그룹에 의해서가 아닌 모자이크 식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주로 미군 부대 관련 군인들에서 서서히 다양한 외국인들의 거주지 및 비즈니스 거리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라는 두 축의 외국인이 주로 산업공단이 위치한 지방의 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이들이 기업가로 변모하여 형성하는 에스닉 경제라 할 만한 구조와 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도 에스닉 경제의 새로운 경관들이 꾸준히 형성되어 혜화동의 필리핀마켓, 대림동의 조선족 중심의 대림중앙시장,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 이태원의 이슬람거리, 동대문 창신동 일대의 네팔음식거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의 중앙아시아거리 등이 익히 알려져 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에스닉 경관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거리들은 에스닉 집적지에서 출발했을지라도 한국인들이 타자의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고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과 노동구조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안산이나 대림처럼 특정 에스닉 그룹의 비중이 높은 경우 에스닉 집적지로서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가령 한국내 다양한 이주민 관련 활동의 공간적 집적지로 알려진 안산 원곡동에서는 기존의 한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하자 이들을 구매층으로 했던 기존 업소들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새로운 구매층으로 상정하고 사업을 전환하거나 동족 이주민들이 직접 창업을 하면서 서서히 비즈니스의 내용과 형태가 변화해 왔다. 구성비가 가장 높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증가하면서 중국어로 손님을 상대하기 어려운 한국인 사업주와 직원들이 점점 중국어가 가능한 조선족이나 중국인 이주민으로 교체되고 있다. 거주자가 적은 에스닉 그룹을 상대하는 사업주들은 한 점포 내에 여러 업종을 겸하고 있거나 상거래의 공간적 범위가 안산시를 넘어 전국에 걸쳐 있기도 하다(장영진 2006: 533-534). 최근에는 에스닉 집거지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에서의 성공과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용국 사회인 한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에스닉 기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베트남 이주민의 음식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베트남 여행 이후 ‘진정한(authentic)’ 베트남 음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한 점, 결혼 이주와 유학생 등 장단기로 체류하는 베트남인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고용인과 일할 수 있는 직원의 풀도 증가한 점 등이 베트남 음식점들이 동족 집단의 수요를 넘어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고 분석하였다(김주락, Bui, and 허권 2023: 68).

에스닉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 경관은 글로벌 도시의 인구와 문화의 다양성이 내적으로 경합하는 내파(global implosion)(Kearney 1995)적 경관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요인 중 하나이다. 민족주의적 주체에게 이는 민족적 동일성에 기반한 국가주권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세계시민적 주체에게는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 도래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이다. 가령 원주민이 독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는 공간적인 배제를 의도한 불쾌한 기호로 읽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타자의 언어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대문의 네팔 타운에 대한 서선영의 연구는 이 두 개의 다른 에스닉 경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네팔 타운 초기 형성기에 영업을 시작한 한 네팔 레스토랑은 에스닉 비즈니스의 사례로서 네팔인이 운영하고 직원의 다수가 네팔인이며 가게의 안과 밖은 모두 네팔의 상징기호들로 넘쳐난다. 네팔의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다수의 손님이 한국인으로 네팔을 여행했거나 여행하고 싶은 한국인은 이 곳의 음식을 소비하며 ‘진정한’ 네팔의 음식문화를 경험한다. 이 가게의 바로 주변에는 한국인에게 배타적인 공간적 전략들을 채택하여 네팔 노동자들만을 고객으로 하는 가게들도 있다.

가령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에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아 외부자들에게 ‘모호한’ 느낌을 줌으로써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전략이다. 이들 가게는 네팔 노동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주말에만 영업하고 큰 흠을 유지하여 네팔인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한국인에게는 영업을 활발하지 않은 실패한 비즈니스로 보이지만 이러한 배타적인 공간적 전략은 오히려 이주민 네팔인들에게는 위안의 장소이자 네팔 공동체에게는 이들의 연대와 정치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Seo 2023)

이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 내 에스닉 경제를 바라볼 때 아파듀라이가 제안한 것처럼 이러한 글로벌 문화 현상의 분절적 측면을 다양한 경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에스닉 경제의 금융 경관과 에스닉 경관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은 다수의 연구들이 이미 분석해 왔다. 새롭게 주목해야 할 측면은 기술경관일 것이다. 에스닉 경제의 주요 분야들이 소규모 수출입, 도소매,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고 고도의 테크놀로지보다는 비숙련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핸드폰과 SNS 등을 활용한 일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에스닉 경제의 구조와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IV. 디지털 기술과 에스닉 경제의 아상블라주(asmblage)

사회적 연결망의 도구인 SNS -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허가된 5년여 간의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그 동안 한국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다른 길을 모색하곤 하는데 그간 보아온 소무역상의 길이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주수인의 연구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본국에서의 두터운 신뢰 관계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작동하여 신뢰에 기반하여 송금과 소무역의 물자들을 인편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2015). 자본주의적 금융업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판매될 만한 아이템들, 가령 방충망,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 가능성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 발을 딛고 탐색하고 한국에서의 임금을 모아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좀 더 나은 거주지와 점포의 위치를 탐색한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이주 노동자나 소무역상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동족 지인들과의 정보 교환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유지와 투자 탐색을 위한 논의, 자신의 인맥과 자본력을 과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에서 SN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국에서처럼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SNS를 통해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주수인, 2015: 59).

착취와 탈착취의 도구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직 앱(app) - 2020년대 초반 학생비자를 받고 대학원생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인 A씨는 입학하고 학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학생비자로는 불가능했지만 현금을 거의 가지고 올 수 없었기에 돈을 벌고자 열심히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처음엔 부평에 있는 미얀마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패키징 보조, 수원의 핸드폰 가게에서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핸드폰, 그리고 서울과 부평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식당에서 요리와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하게되었다. 초기 부평에 있는 미얀마 식당에서의 서빙이 첫

노동의 경험이었는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알고 있던 유일한 미얀마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있던 페이스북(Facebook)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가게 되었다.

“제가 일한 곳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일하고 그만뒀어요. 13시간을 일하고 9만원을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나 식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주 그만두는지 사장도 일단 먼저 일해보고 계속 일하지 결정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 있던 직원들 4-5명 모두 미얀마인이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미얀마인 사장이 한국말 못하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여기 임금 수준도 잘 모르는 미얀마 동족들을 착취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돈 올려달라고 하니깐 그 사장은 이렇게 한국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짧게 고용하고 계속 새로 온 미얀마인들만 고용하는 것 같았어요.” (2024년 2월 2일 인터뷰)

A씨는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기초 교육을 받으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온라인의 미얀마 공동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직 앱(app)이나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A씨의 핸드폰에는 5개 이상의 구직 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 기반의 특정 앱을 통해 연락하기를 요구하면 새로운 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했다.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 없었기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국어로 소통하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다. 언어 장벽이 없고 같은 미얀마인에게 고용되거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일자리들이 처음에는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자국민 고용주에게 더 쉽게 착취되거나 미얀마인에게 핸드폰을 판매해야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한국어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구직 앱을 활용하여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더라도 그런 착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 식당 운영자들은 자신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보다 늘 낮은 시급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국민 사장님과 일할 때 가장 착취의 경우가 심하다면서 한국어 실력과 구직 앱의 결합이 착취를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진정성(authenticity) 확보와 판매 창구로서의 SNS와 라이브 방송 - 진정성(authenticity)란 권위 있는, 가짜나 복제가 아닌 진짜의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런 진정성을 확보해주는 게 바로 “여기, 지금”이라는 점이다. 실제 그 장소에 내가 직접 존재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 경험처럼 말이다. 여행에서 유명한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SNS에 올려야 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 그 장소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함으로써 그 여행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소무역상들 특히 중국에서 동대문으로 오는 소무역상들은 중국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구매 대행을 위한 물품 주문은 물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구매대행 제품들이 진정한 한국의 상품임을 보증한다.

“워낙 중국에서 팔리는 가짜들이 많다 보니 제가 사오는 제품들이 진짜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 저의 쇼핑 경로마다 사진을 찍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고 주문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줘요” (30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C, 2016년 1월 인터뷰)(김지윤 2021에서 재인용).

C씨는 2011년부터 의류 구매대행을 위해 중국과 한국을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구매 대행을 할 만한 옷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위챗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주문을 받기도 하고 한국에 머무는 3-4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주문 수량을 확정하고 주문을 완료하면 한국의 배송 대행 업체들이 중국으로 물건들을 배송해 준다. 라이브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C씨는 의류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자신이 방문하는 카페나 레스토랑과 서울의 관광지 등도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한국 제품과 사회에 익숙한 숙련된 전문가로 재현한다. 인터넷은 제품의 진위여부는 물론 판매자의 전문성을 보증해주는 도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핸드폰을 통한 SNS와 앱의 일상적 사용은 에스닉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만큼의 영향력이 에스닉 경제의 참여자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SNS와 핸드폰을 통한 실시간 연락과 정보 검색을 통해 더 두터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착취를 피하거나 착취를 용이하게 하거나, 소자본으로도 더 많은 물량 주문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의 신용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의 탐색과 확산, 네트워킹의 양적 확장을 통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가 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와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 그 역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은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 간의 접속에 의한 새로운 아상블라주(asmontage)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객체지향존재론에서는 물질, 관념, 개념 등을 포괄하는 비인간과 인간 등 모든 존재자들을 일종의 ‘기계(machine)’로 본다. 어떤 입력물을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출력물을 산출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브라이언트 2020: 25). 이들 기계는 서로 다른 기계들과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기계 회집체(machinic assemblages)’가 되고 홀로 존재했을 때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역능을 창발함으로써 생산적이다(ibid., 124). 인간들도 사물과 다름없이 세계라는 이 기계에 속하는 하나의 기계이고 매 순간 다른 기계들의 매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계들이 느슨하게 접속하여 구성된 회집체이다. 우리는 이런 접속을 통해 개인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구성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에스닉 기업가나 그 노동자들은 핸드폰이라는 기계와 접속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모두 같은 출력물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인 A씨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 이후 구직 앱과의

접속을 통해 동족 에스닉 기업가의 착취를 피할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른 미얀마인의 신체기계는 이러한 구직 앱과 접속할 수 없으며 동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게 되고 저임금의 트랩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도움 없이도 더 높은 교육 자본과 두터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에스닉 경제에서 더 높은 생산력을 낼 수도 있다. 동대문에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 외국인의 환전 및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주 고객이 네팔인이어서 네팔인 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한 지점의 직원 3명을 인터뷰하였는데 본점의 설립자는 한국인이다. 30-40대의 네팔인 직원들은 모두 한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고용되었으며 이전 네팔 직원들의 소개를 통해 취업하였다. 이들은 이전에 대학원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거나 현재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화, 문자, 자사의 전용 앱을 통해 고객들의 송금, 환전, 대출 서비스를 돕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인터넷의 커뮤니티나 구직 앱과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고 한국인 사장은 학력과 한국어 능력 수준이 모두 높은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 등록을 알선해주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세 명 중 두 명은 사장이나 전임자가 소개해준 대학에 등록하여 최소 2-3년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자유로운 편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으며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는 동대문에 민족적 구성으로는 네팔인 동료들에 제한되어 매우 폐쇄적이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이 에스닉 경제는 한국인과의 접속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다. 송금과 대출 등의 업무는 인터넷과 बैं킹 앱과의 접속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동대문의 네팔 커뮤니티와의 접속 자체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이들은 이 경계를 벗어나는 다른 것과의 아상블라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디지털 기술이 에스닉 경제와 접속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상블라주는 기존의 에스닉 경제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디지털 기술에 접속하는 기계로서의 개개인의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요소들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호. 2005.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 화교의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김지윤. 2021. “상상의 케이패션(K-Fashion)과 문화적 상호참조: 동대문 패션시장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 *호모미그란스* 25: 127-163.
- 박우. 2017.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브라이언트, 레비 R. 2020. *존재의 지도-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 장영진. 2006.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 주수인. 2015.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경제활동: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 Aldrich, Howard E. and Roger Waldinger. 1990.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1): 111-135.
- Batnitzky, Adina and Linda McDowell. 2013. “The Emergence of an ‘Ethnic Economy’?: The Spatial Relationships of Migrant Workers in London’s Health and Hospitality Sectors.” *Ethnic and Racial Studies* 36(12): 1997-2015.
- Bauman, Zygmunt. 2007.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Polity Press.
- DeHart, Monica C. 2010. *Ethnic Entrepreneurs: Identity and Development Politics in Latin Americ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Furnivall, J. S. 1942.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opical Far East.” *J. R. Cent. Asian Soc.* 29: 195-210.
- Gregory, Derek. 2003. “Emperors of the Gaze: Photographic Practices and Productions of Space in Egypt, 1839-1914.” In *Picturing Place*, 1st ed., 195-225. London: Routledge.
- Hillmann, Felicitas. 2006. “Gendered Landscapes of Ethnic Economies: Turkish Entrepreneurs in Berlin.” In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97-108. Lanham, Boulder, New York, Toronto, Plymouth: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Kaplan, David H. and Wei Li, eds. 2006.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ight, Ivan. 2004. “Immigration and Ethnic Economies in Giant Cit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6(181): 385-398.
- Morris, H. S. 1967. “Some Aspects of the Concept Plural Society.” *Man* 2(2):

169-184.

- Pécoud, Antoine. 2000. "Thinking and Rethinking Ethnic Economies."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9(3): 439-462.
- Samers, Michael. 1998. "Immigration, 'ethnic minorities',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A Critical perspective." *Geoforum* 29(2): 123-144.
- Seo, Seonyoung. 2023. "Creating Exclusionary Spaces to Enter the Public Sphere: Spatial Strategies of Nepalese Restaurants in a Globalizing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6(2): 137-152.
- Valdez, Zulema. 2011. *The New Entrepreneurs: How Race, Class, and Gender Shape American Enterpris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Zhou, Min. 2004. "Revisiting Ethnic Entrepreneurship: Convergencies, Controversies, and Conceptual Advancement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40-1074.

심양(沈陽) 서탑(西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연구

김혜련 교수
한성대학교

심양(沈阳) 서탑(西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연구

김예련
(한성대학교)

I. 서론

1. 문제제기

국경을 횡단하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주의 시대, 이주민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문화접변지역, 즉 에스닉 타운(Ethnic town)이라고 불리는 이주민 밀집지역이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이주민 밀집지역은 치안 및 빈곤문제로 거주국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 되고 계토화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공간으로 인정받 으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181개국에 분산거주 하고 있는 708만 재외동포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코리아 타운을 조성해왔다.¹⁶⁾ 코리아타운은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민족 정체성을 전승하고 민족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민족의 문화와 거주국 문화를 융합하는 복합적 문화플랫폼이기도 하다.¹⁷⁾ 2,109,727명¹⁸⁾ 재외동포가 정착하고 있는 중국에도 북경(北京), 심양(沈阳), 상해(上海), 광주(广州) 등 대도시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 심양은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심양 유입과 함께 현재는 한국인, 중국 조선족과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나아가 북한인이 공존하고 어울리는 초국가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봉천(奉天), 성경(盛京)으로 불려왔던 심양은 중국 요녕성(辽宁省)의 성도로 중국의 중요한 산업 중추이자 동북지역의 최대 도시이다. 2023년 기준 심양의 상주인구는 92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심양 거주 중국 조선족은 88,676명에 이른다.¹⁹⁾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심양 이주는 19세기 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서탑(西塔)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전후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 한반도에서 심양 서탑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은 50여 가구에 달했다.²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전환을 완성한 한인은 점차 서탑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서탑은 조선족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1992년 한중

16)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총 181개국에 708만1,510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검색일: 2024.03.18)

17) 주동완·임영상, “코리아타운의 활성화와 위키콘텐츠: 뉴욕 플러싱 K-Town 위키백과 구축,” 『인문콘텐츠』 제44호(2017), p.37.

18) 재외동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중국에는 215,964명의 재외국민과 1,893,763명의 외국 국적동포 즉 중국 조선족이 정착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검색일: 2024.03.18)

19) 沈陽市統計局, 『2023年沈陽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https://tjj.shenyang.gov.cn/sjfb/tjgb/202404/t20240411_4629092.html(검색일: 2024.03.22)

20) 沈陽市民委民族志編纂辦公室, 『沈陽朝鮮族志』(1989), 遼寧民族出版社, p.2.

수교 이후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의 심양 진출과 함께 오늘날의 서탑은 조선족백화점, 조선족학교, 조선족 문화관이 운영되고 있는 조선족거리인 동시에 경회루, 백제원 등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공존하는 중국 국내 대표적 코리아타운이다. 비록 사드(THAAD) 사태 이후 한중관계 악화, 한한령(限韓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 강화, 중국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한국 기업 퇴출 등으로 코리아타운이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심양 서탑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공간이자 이주민 밀집지역이다.

19세기부터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이다. 바스치(L.B.asch)는 초국가주의를 이주민들이 유입국과 송출국 사회를 모두 연결하는 여러 가닥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²¹⁾ 즉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국경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장을 건설하며,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그들만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도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 한인 경제인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한국인회, 조선족연의회 등 단체를 구축하면서 글로벌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한류의 영향과 함께 한국 위성 TV, 한국 대중문화를 공유하면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발전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존하는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적응 실태를 검토하고,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실현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양시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중국 조선족 5명과 심양시 거주 한국인 3명, 총 8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심양 거주 기간	직업
참여자 1	전춘○(全春○)	6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반찬 가게 운영
참여자 2	조운○(曹云○)	3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부동산 가게 운영
참여자 3	로○(罗○)	2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대학생
참여자 4	김해○(金海○)	50대	여	중국조선족	심양 출신	화장품 가게 운영
참여자 5	김동○(金东○)	4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물류회사

21) L. Basch, Nina Glick Schiller and C. Szanton Blanc,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Basle: Gordon & Breach, 1994), p.7.

						경리(經理)
참여자 6	이재○	50대	남	한국	11년	식당 운영
참여자 7	권선○	50대	여	한국	15년	화장품 가게 운영
참여자 8	김경○	60대	여	한국	23년	미용실 운영

심층면접은 현지조사 기간 심양시 서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 총 8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모두 심양 서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이며,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초국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활한 심층면접을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정착 실태, 초국가적 공동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심층면접 참여자는 심양시 거주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포함되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된다. 또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코리아타운에서 식당 혹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II. 이주민 밀집지역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이주민의 이국적 문화 자원이 인정받고 이주민 밀집지역이 도시 재생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59만 명²²⁾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천 차이나타운, 대림 차이나타운, 몽골타운, 중앙아시아거리, 고려인마을 등 이주민 밀집지역의 화제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학계에서의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손꼽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연구는 대부분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전 즉 코리아타운 전성기에 이루어졌으며,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폭 감소된 실정이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중국 학계의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탑거리(西塔街)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위이핑(2007)은 현재의 심양 서탑거리를 "리틀 서울(小漢城)"으로 표현하면서 중국 조선족의 서탑지역 유입 역사와 백여 년 전의 빈민촌(棚戶區)에서 오늘날의 서탑거리로 발전된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²³⁾ 지궈시우·리샤오린(吉國秀·李曉林, 2015)은 공간사회학 이론으로 심양 서탑을 접근함으로써 서탑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공간, 마을 공간, 조선인 밀집지역을 거쳐 현재의 조선족 문화 특색 거리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⁴⁾

22)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594,93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3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검색일: 2024.04.23)

23) 偉萍, "沈陽西塔街: 昨日棚戶區, 今天北方'小漢城'," 『城鄉建設』 2007年第7期(2007), pp.76-77.

24) 吉國秀·李曉林, "西塔的變遷: 一个空間社會學的視角," 『沈陽師範大學學報』 191期(2015), pp.37-39.

둘째는 코리아타운 정착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이다. 류위통·탕메이(劉昱彤·唐梅,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탑 코리아타운은 길림(吉林) 연변(延邊)지역 이외 중국 조선족이 가장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이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²⁵⁾

셋째는 코리아타운의 상권 및 경제 성장 관련 연구이다. 귀명치(郭夢琪, 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상(韓商)과 그들의 경제활동에 주목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은 한상의 투자와 한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²⁶⁾ 류치우웨이(劉秋月, 2012)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경제 발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인문 경관, 역사 문화,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거대한 상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심양시의 지원과 조선족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²⁷⁾

이렇듯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을 서탑거리(西塔街)로 지칭하면서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 경제 성장, 아울러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중국 학계와 달리 한국 국내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 도시 포용성 등 주제로 코리아타운을 접근하고 있다.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축제문화 관련 연구이다. 신춘호(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 “2010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 개최 과정과 행사의 성격,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류행사가 한국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신한류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²⁸⁾ 임영상(2014)은 미국 로스앤젤리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조선족련의회, 조선족민속절, 심양한국주 등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²⁹⁾ 송해련(2017)은 에스닉 타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에스닉 축제라고 주장하면서 심양한국주 축제와 심양조선족민속절을 중심으로 서탑 코리아타운 축제 지식맵을 구축하였다.³⁰⁾

둘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관련 연구이다. 이심홍·김민형(2020)은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규명하기 위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기반으로 코리아타운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나아가 시기별로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¹⁾

요컨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지만, 한중 양국 학계의 기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 전통문화, 민족축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코리아타운 내부에 형성된 초국가 공동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7년 사드 사태이후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현주소를 규명하고, 아울러 초국가주의라는 이

25) 劉昱彤·唐梅, “論族群認同在城市民族社區發展中的作用：以沈陽西塔爲例,” 『研究·工作』 (2011), pp.49-50.

26) 郭夢琪, “從在華韓商看中韓文化交流與融合：以沈陽西塔商業街爲例,” 『商業流通』 (2011), pp.8-9.

27) 劉秋月, “沈陽西塔民族社區經濟競爭優勢初探,” 『時代教育』 第11期(2011), p.262.

28) 신춘호, “심양 코리아타운 ‘서탑’과 한국문화: 심양한국주간과 2010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 경우,” 『재외한인연구』 제24호(2011), pp.173-233.

29) 임영상,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민족문화축제,” 『중국학연구』 제70집(2014), pp.429-463.

30)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p.1-162.

31) 이심홍·김민형,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0호(2020), pp.177-189.

념 하에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주민 밀집지역과 초국가 공동체

이주민 밀집지역은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이주민 집단이 거주국에서 살아 남기 위한 독자적 생존전략으로서 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³²⁾ 이주민은 이러한 밀집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모국의 전통과 문화를 재생하는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브람슨(Abrahamson)은 이주민 밀집지역의 설립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이주민 집단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주민 집단의 전통적 문화 상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상업구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이주민 집단의 문화 및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³³⁾

이주민 밀집지역은 거주국과 이주민의 모국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인 동시에 이주민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공간에서 집중 거주하면서 모국에 대한 향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공동체이기도 하다.³⁴⁾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을 근대이후 형성된 역사·사회적 구축물로 이해하면서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민족은 지리적·물리적 거리를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⁵⁾ 앤더슨은 민족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이해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는 '현실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 변모된다고 지적한다. '현실 공동체'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동유대가 형성되며, 아울러 특정 공간 및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기존의 '상상 공동체'가 현실 속의 공동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³⁶⁾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현실 공동체'이다. 다른 한편, 정보기술 및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상상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가 구성원 간의 소통, 교류 등 상호작용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상상의 공동체'는 '가상의 공동체'로 변모한다고 설명한다.

중국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沈阳西塔民族文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현재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활동, 문화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초국가 공동체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성에 주목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발전, 그리고 위기

32)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2017), p.196.

33) 민병갑·주동완, “뉴욕 플래싱, 베이사이드 지역의 한인타운,”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 (2012), 북코리아, p.54.

34) 김혜련, “일본 화교 화인 민족집거지의 형성과 화교단체의 역할,” 『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2017), pp.36-37.

35)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Verso, 1991; 임영언, “초국가시대 세계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2011), p.235.

36) 임영언, p.236.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위해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이주 역사와 코리아타운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서탑이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서탑 이주

요녕성(辽宁省)의 성도 심양시(沈阳市)는 동북지역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교통·군사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국 유입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반도의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심양조선족지(沈阳朝鲜族志)』의 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로 한인이 서탑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931년 기준 심양시에는 이미 5,425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941년에는 한인 규모가 46,125명으로 증가하였다.³⁷⁾ 심양시 정착 한인의 규모가 증가하자 점차 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화평구(和平区) 서탑지역이다.

서탑(西塔)이라는 지역 명칭은 심양시의 4개의 탑에서 유래되었다. 서탑은 청태종(清太宗) 황타이지(皇太极)가 건립한 동, 서, 남, 북 4개 탑 중 서쪽에 위치해 서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643년에 착공해 1645년에 준공한 서탑 아래에는 연수사(延寿寺)라는 사원도 함께 건축되었다. 1980년대 동, 남, 북쪽에 위치한 3개의 탑은 정부 지원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서탑의 경우 1968년에 철거되었다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심양시정부에 의해 복구되었다.³⁸⁾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사진 1> 심양시 서탑(西塔)과 연수사(延寿寺)

심양역 근처에 위치한 서탑은 교통이 편리하고 장사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많은 한인들이

37) 沈陽市統計局, 『2023年沈陽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https://tjj.shenyang.gov.cn/sjfb/tjgb/202404/t20240411_4629092.html(검색일: 2024.03.25)

38) 偉萍(2007), p.76

유입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 전환한 한인은 서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서탑지역은 심양 시내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으며, 한민족 음식서비스업의 발원지가 되었다. 조선족은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해 점차 냉면, 김치 등 민족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서탑지역을 조선족거리로 발전시켰다. 심양시의 빈민거리에 불과했던 서탑은 조선족의 유입과 정착에 따라 조선족민족집거지로 성장하였다.

100여 년 전부터 심양 서탑지역으로 유입해 생활해온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백화점(沈阳朝鲜百货), 조선족전통시장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조선족병원을 설립해 그들의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조선족문화예술관을 설립해 조선족의 전통 문화를 꾸준히 전승해왔으며, 조선문서점을 운영해 민족도서의 출판, 판매를 지원하였다.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사진 2> 심양 서탑의 조선백화(朝鮮百貨)



<사진 3> 서탑의 전통시장

다른 한편, 심양 서탑지역에는 차세대 조선족이 그들의 민족언어와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민족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족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탑에는 서탑조선족소학교(西塔朝鲜族小学)와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1920년에 설립된 서탑조선족소학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78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³⁹⁾ 서탑조선족소학교와 인접해있는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기준 51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08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⁴⁰⁾

39) 沈阳市和平区西塔朝鲜族小学, <https://baike.baidu.com/>(검색일: 2024.04.29)

40) 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 <http://jz.tcmmap.com.cn/campus/1/shenyangshichaoxianzudiliuzhongxue.html>(검색일: 2024.04.29)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사진 4> 서탑조선족소학교



<사진 5>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

2.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심양 서탑의 비약적 발전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개혁개방 당시 서탑은 “질퍽이는 골목길과 난잡한 상점, 허물어진 벽돌담과 일그러진 양철지붕”⁴¹⁾이 전부였다. 이때의 서탑은 여전히 빈민촌에 불과했다. 1988년 심양시전기기계국주택개발공사가 서탑을 심양 조선족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건설하고자 공사를 시작하였다. 3억 6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서탑의 중앙로를 확장하고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 백화점, 병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녹색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6년 정도 지연되었다.⁴²⁾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함께 심양 서탑지역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탑의 개발과 발전은 다시 가속화되었다. 한중수교이후 심양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탈바꿈하였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500m가량의 서탑가를 중심으로 2.58km² 부지에 상가와 주거단지가 밀집해있다.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사업목적으로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은 중국어능력 미흡,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나타나는 현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족이 밀집거주하는 서탑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말 서탑에서 첫 한국식당 '백제원(百濟園)'이 오픈하고, 한국 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 등이 있다.

다른 한편, 백제원·신라성·경희루 등 한국식당이 운영되고 조선족, 한국인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권이 형성되자 2005년 이후에는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도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기타 소수민족은 물론 한국인, 북한인 등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만남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서탑 코리아타운은 국경을 초월하는 명실상부한 초국가 공간이다.

41) 안상경, “서탑코리아타운: 조선인 거리에서 중국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월드코리아(2022),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9>(검색일: 2024.03.29)

42) 안상경(2022),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9>(검색일: 2024.03.29)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沈阳西塔民族文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는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민족경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글간판은 물론, 장고·한복 등 한민족 문화요소를 나타내는 건축이나 조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냉면·김치·떡·삼계탕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나 식당도 즐비하다.

참여자 1: 나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어요(웃음). … 서탑은 "작은 한국(小韩国)"으로 불려요. 여기 오면 없는 것이 없어요. 김치, 순대, 삼계탕, 된장, 고추장 … 옛날에는 조선족이 김치 사러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한족사람이 더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이제는 조선족보다 한족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조선족은 한국에 많이 가고(한숨).

참여자 6: 중국에서 최대 코리아타운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탑에서는 우리 한민족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한글 간판, 한복, 한식, 한국사람도 오면 깜짝 놀라요.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사진 6>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경관

3.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심양 진출, 대한항공의 심양 노선 취항과 함께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탑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서탑지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는 한국인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를 계기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를 중국사회로 홍보하는 창구로 거듭났고, 2014년에는 한중교류문화원이 개원했다.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리틀 서울(小汉城)”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불야성으로 불리던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는 사드(THAAD) 사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선린우호관계(善邻友好关系)'로부터 시작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발전한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한한령(限韩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한류(韓流)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대규모의 한국인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다시 말해 한중 양국 간의 정치 갈등, 한한령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심양 진출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퇴출하기 시작했으며, 서탑 및 심양에 거주하고 정착하던 한국인의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자 7: 사드 때문에 한동안 험한정서 심했어요. 서탑에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한류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한식 먹어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이 왔는데, 사드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반 이상은 줄었어요. 그때 문닫는 가게 정말 많았어요.

참여자 8: 코로나 때 한국사람 많이 들어갔죠. 초반에는 중국에서 (코로나)단속 강하게 하니깐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시 봉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 못 버티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IV.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입되면서 조성된 초국가 공간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구축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초국가 경제공동체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조선족이 유입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조선족집거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면서 상권이 한층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는 초국가 경제 공동체로 발돋움 하였다.

현재 서탑가를 중심으로 양측에는 대략 140여개의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요식업체이다. 또한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반찬가게, 환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이 있고,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구축한 초국적 경제공동체이다. 서탑 코리아타운에 이러한 상권과 경제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개최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출처: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 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29.

<지도 1>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상권

심양시정부와 한국주심양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0회 개최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는 한중 양국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를 통해 한국기업과 중국(조선족)기업의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도 촉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23년 9월 25일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을 함께 도모하며,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共享机遇·共谋发展·共创未来)"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심양한국주' 행사에서는 한중 양국 기업이 159개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고, 2,613억위엔의 투자를 유치하였다.⁴³⁾ 일주일동안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3년의 경우, 기업전시회를 운영해 한중 양국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LG전자,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농심 등 한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해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경제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심양한국주' 기간에는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패션쇼, 미식회를 개최한다. '심양한국주' 기간에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한민족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복 퍼레이드는 물론, 한민족의 문화를 선보이는 전통 공연, 나아가 한식을 맛볼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미식회(美食节)도 개최한다.

43) "2023中國(沈陽)韓國周開幕", https://roll.sohu.com/a/723893559_362042(검색일: 2024.04.25)

참여자 3: 한국주는 심양이나 서탑에서도 중요한 행사예요. 요즘에는 미식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서 중국 친구들로 관심가지고 찾아와요. 서탑에 오면 한복도 입을 수 있고, 한식도 먹을 수 있어서 특히 한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참여자 6: 심양에서 한식, 조선족음식을 맛보려면 사람들이 먼저 서탑을 떠올려요. 그만큼 서탑에는 한국식당도 있고, 조선족 식당, 그리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북한식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삼계탕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다양해요. 한국사람, 조선족, 지금은 한족이 제일 많아요.

참여자 2: 서탑은 이미 큰 상권(商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한국사람도 있고, 북한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족이 장사를 많이 해요. 반찬가게도 이전에는 다 조선족이었는데, 지금은 한족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조선족, 한국사람, 그리고 북한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여자 5: 저희 물류회사는 주로 한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한국 기업과 교류를 제일 많이 해요. ... 사무실을 서탑에 두고 있는 이유도 한국인과 더 쉽게 만나고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울리고 공존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이미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되었다. 특히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 북한인, 그리고 중국 한족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 글로벌 사회공동체

서탑 코리아타운에 유입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사회공동체가 구축되었다. 다양한 사회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심양조선족련의회(沈阳朝鲜族联谊会)와 심양한국인(상)회이다. 1988년에 설립된 심양조선족련의회는 조선족의 친목 도모를 취지로 설립된 사회단체로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심양시조선족청년협회,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 등 다양한 조선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⁴⁴⁾ 다른 한편, 심양한국인사회에서 대표단체로 손꼽히는 심양한국인(상)회는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심양 조선족사회와 한국인사회를 대표하는 심양조선족련의회와 심양한국인(상)회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두 단체는 서탑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미식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민족 전통명절 축제인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도 함께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심양시 조선족과 한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서탑 코리아타운의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민간단체에 의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개인생활에서도 잘 체현되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거주지역이 중첩되고 같은 상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교류와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의 교류가 확인되었다.

44) 임영상(2014), p.450.

연구자: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은 어느 정도로 교류하고 있나요?

참여자 4: 거의 매일 한국사람 만나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도 많고요. 저는 화장품 가게를 하
다보니까 한국 손님이 많아요. 저도 한국 자주 가요. 서탑에서는 한국사람 만나는거
일상이에요.

참여자 2: 저희 아파트 위층에 바로 한국사람 살아요. 그 친구가 또 서탑에서 식당도 하고 있
어요. 자주 만나죠. 그 한국 친구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하고 … 말도 통하고 문화
도 비슷하니까 편하게 만나요.

참여자 8: 한국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조선족을 통해서 자리 잡았잖아요. 우리는 중
국말도 모르고 여기 문화도 모르니까 … 조선족과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공존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민족단체를 통해 사회공
동체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글로벌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사회공동체는 국제정세의 변화, 한중관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모순이 동반되는 등
미묘하게 변화되기도 한다.

3. ‘한류’ 중심 문화공동체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곳곳에서 ‘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민족
문화공동체는 1998년 심양에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 KBS, MBC, SBS를 비롯
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조선족은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이 발표되기 이전, 중국은 한류의 진원지이자
한류 확산의 거점기지이었다.⁴⁵⁾ 1997년의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해 “가을동화”, “겨울연가”가 중
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2005년에 방영된 “대장금”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 언론에서 처음 등
장한 ‘한류(韓流)’는 드라마를 넘어서 K-Pop, 한국 영화, 한국의 언어, 음식, 패션, 메이크업 등 한국 문
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⁴⁶⁾ 한류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조선족이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국 조선족은 한류 문화 콘텐츠
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여자 1: 집에 당연히 한국 TV 나오지요. 매일 봐요. 드라마도 보고, 전국 노래자랑도 보고.
없으면 안돼요. 한동안 안테나 설치 불법이라고 떼어간 적도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
요. … 주변 조선족 친구들은 다 한국 TV 보고 있어요.

참여자 2: 저희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 TV를 접했고,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드라마 많이 보고 있
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 그만큼 우

45) 선봉규,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안의 한류(Korean Wave)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9권
4호(2014), p.94.

46) 선봉규(2014), p.96.

리에게는 한국 문화가 익숙해요. 한한령 때문에 한류가 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중국 친구 많아요.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중국 조선족은 점차 심양 정착 한국인과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 8월 한인회가 주최하는 서탑 거리 공연 '동북3성 한민족화합 노래자랑'에 중국 조선족이 함께 참여하였고, 2000년 10월에 개최된 '2000 심양 미스조선족 선발대회'는 심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이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리고 2009년 심양에서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은 한민족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과 조선족의 화합의 장이었다. 나아가 2002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 행사와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미식회"에서 서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은 협력하여 한복 퍼레이드, 전통 문화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문화공동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V. 결론

전 세계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708만 한인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 미국의 LA와 뉴욕,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 등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거주하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실태, 그리고 사드 사태 이후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유입은 1910년 전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통이 편리한 서탑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들만의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심양시의 빈민촌에 불과했던 서탑지역은 조선족 유입 이후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어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점차 심양 조선족사회의 경제·사회·문화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현재의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비록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인의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코리아타운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서탑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이다. 이 연구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서탑지역에 구축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심양시 주요 상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초국가적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치과, 미용실이 있으며,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가 있다. 즉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거대한 경제공동체이다. 다음,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한 사회공동체이다. 서탑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조선족련의회, 심양한국인(상)회를 비롯한 그들만의 사회단체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사회단체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공동체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민

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민족언어와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에 공감하면서 서답 정착 한국인과 문화행사를 함께 하는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혜련, "일본 화교 화인 민족집거지의 형성과 화교단체의 역할," 『동북아문화연구』제51집 (2017).
- 민병갑·주동완, "뉴욕 플러싱, 베이사이드 지역의 한인타운,"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2012), 북코리아.
-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2017).
- 선봉규,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아인의 한류(Korean Wave)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9권 4호(2014).
-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 신춘호, "심양 코리아타운 '서탑'과 한국문화: 심양한국주간과 2010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 경우," 『재외한인연구』 제24호(2011).
- 이심홍·김민형,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0호(2020).
- 임영상,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민족문화축제," 『중국학연구』 제70집(2014).
- 임영언, "초국가시대 세계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2011).
- 주동완·임영상, "코리아타운의 활성화와 위키콘텐츠: 뉴욕 플러싱 K-Town 위키백과 구축," 『인문콘텐츠』 제44호(2017).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Verso, 1991.
- L. Basch, Nina Glick Schiller and C. Szanton Blanc,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Basle: Gordon & Breach, 1994).
- 郭梦琪, "从在华韩商看中韩文化交流与融合: 以沈阳西塔商业街为例," 『商业流通』(2011).
- 吉国秀·李晓林, "西塔的变迁: 一个空间社会学的视角," 『沈阳师范大学学报』191期(2015).
- 刘秋月, "沈阳西塔民族社区经济竞争优势初探," 『时代教育』第11期(2011).
- 刘昱彤·唐梅, "论族群认同在城市民族社区发展中的作用: 以沈阳西塔为例," 『研究工作』(2011).
- 沈阳市民族志编纂办公室, 『沈阳朝鲜族志』(1989), 辽宁民族出版社.
- 伟萍, "沈阳西塔街: 昨日棚户区, 今天北方'小汉城'," 『城乡建设』2007年第7期(200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3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검색일: 2024.04.23.)
- 안상경, "서탑코리아타운: 조선인 거리에서 중국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월드코리아(2022),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9>(검색일: 2024.03.29)
-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검

색일: 2024.03.18.)

"2023中国(沈阳)韩国周开幕", https://roll.sohu.com/a/723893559_362042(검색일: 2024.04.25)

沈阳市统计局, 『2023年沈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s://tjj.shenyang.gov.cn/sj_fb/tjgb/202404/t20240411_4629092.html(검색일: 2024.03.22)

沈阳市和平区西塔朝鲜族小学, <https://baike.baidu.com/>(검색일: 2024.04.29.)

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 <http://jz.tcmmap.com.cn/campus/1/shenyangshichaoxianzudiliuzhongxue.html>(검색일: 2024.04.29)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디지털시대 이주민의 건강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이주민 적용 방안 모색

연미영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기획팀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이주민 적용 방안 모색

2024. 5.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기획팀 연미영

1

1 디지털헬스케어 정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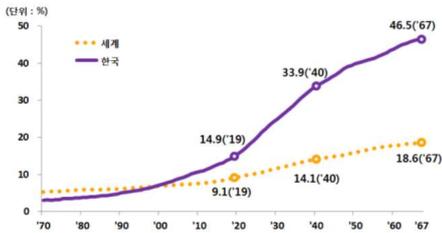
2

보건의료 당면 문제

한국, 2067년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늙은' 국가된다

기사입력 2019-09-02 16:09:42

2067년 65세 고령화인구 비중 46.5%...생산연령인구 감소 전세계 1위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Health and Economic Costs of Chronic Diseases

Print

90% of the nation's \$4.1 trillion in annual health care expenditures are for people with chronic and mental health conditions.^{1,2}



Chronic diseases have significant health and economic costs in the United States. Interventions to prevent and manage these diseases have significant health and economic benef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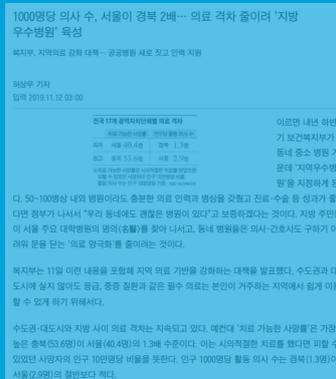
3

보건의료 당면 문제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료격차, 지역별 불균형 심화"

"필수의료 붕괴 경고음"



Source: 세계일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내·외과 심각", '22.12, 조선일보, "1000명당 의사 수, 서울이 경북 2배... 의료 격차 줄이려 '지방 우수병원' 육성", '19.11 동아일보, "건보재정 깎아먹는 거짓·부당 청구, '23.2 등

4

보건의료 당면 문제

Chat GPT

모델명

GPT-3	
GPT-3.5	
GPT-4	
Chat GPT ('22년)	1,750억 개 (GPT-3에 강화학습)
GPT-4 ('24년)	1조 개 이상

E 이데일리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차세대 모델은 개인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각) 챗GPT 차세대 모델은 사용자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4일 전



응용 · 의료

Source: Ouyang, Long, et al.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 arXiv preprint arXiv:2203.02157 (2022).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디지털 헬스

Digital health is the field of knowledge and practic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improve health (WHO)

디지털헬스는 디지털 사회(지속적인 디지털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사람, 조직 및 사물)의 맥락에서 건강 및 의료로 정의 (International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과 같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평생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가칭) 2조)

7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보건의료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란 보건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한 자료*를 의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보건의료 데이터 유형으로는 △진료 데이터, △임상연구 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기기기반 데이터, △오믹스(Omics) 데이터, △라이프로그(Lifelog) 데이터, △앱·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이 존재

8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보건의료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란 보건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한 자료*를 의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보건의료 데이터 유형으로는 △진료 데이터, △임상연구 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기기기반 데이터, △오믹스(Omics) 데이터, △라이프로그(Lifelog) 데이터, △앱·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이 존재

9

2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사례

10

생활 속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치료 영역 기술

- 정신건강 영역: CT-152(Click Therapeutics), AnzeiLax(하이), 마인드스팀(와이브레인)
- 재활 영역: 필로우Rx(웰트), 레디필숨튼(라이프시멘틱스)
- 건강 증진 영역: SmartQuit(2Morrow)
- 자가 관리 영역: BlueStar(웰닥; 당뇨), Omada(Omada Health; 당뇨)

GIA(Global Industry Analysts Inc.),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Caulfield, B. M., and S. C. Donnelly. "What is Connected Health and why will it change your practice?." QJM: 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106.8 (2013): 703-707.

11

생활 속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진단 영역 기술

- 연속 혈당측정: 아이센스, 텍스콤, 프리스타일 리브레
- 체외형 인슐린 주입기: EO Patch(이오플로우), 메드트로닉
- 체성분 측정: 인바디밴드(인바디), 피토
- 심전도 측정기기: Hativ Pro(뷰노), 에이티센스(AT-Patch), 메모 패치(휴이노), CART-I Plus(스카이랩스)
- 뇌파 측정: SLEEPade+(브레인유; 뇌파 이용 수면 평가), OMNIFIT Mindcare(옵니씨앤에스)
- AI 진단 서비스: Lunit Insight (루닛), MEDIHUB(제이엘케이), MediPixel(메디픽셀; angio 영역)
- 혈압 측정: 카메라 기반 측정 기술(딥메디),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GIA(Global Industry Analysts Inc.),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Caulfield, B. M., and S. C. Donnelly. "What is Connected Health and why will it change your practice?." QJM: 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106.8 (2013): 703-707.

12

생활 속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그외 기술

- **영양, 운동 영역:** 건강관리와 가정용 피트니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개념 접목된 사례는 부재
- **원격의료 기술:** 진료예약, 원격진료, 전자처방, 온라인 약국 등의 범주로 나누어 볼 때 현재 적용가능한 기술의 수준은 충분할 듯함.
- **메타버스와 AR/XR:** 환자 교육, 특수한 질환(시야장애, 인지재활, 통증 등)의 치료, 의료인 교육 등의 영역의 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의료 서비스 제공과 원격의료 기술과 연계한 개념을 적용한 기술은 식별되지 않음
- **전자의무기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료 목적의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돌봄 영역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GIA(Global Industry Analysts Inc.),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Caulfield, B. M., and S. C. Donnelly. "What is Connected Health and why will it change your practice?." QJM: 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106.8 (2013): 703-707.

13



발달지연 및 장애 인지개선 DTx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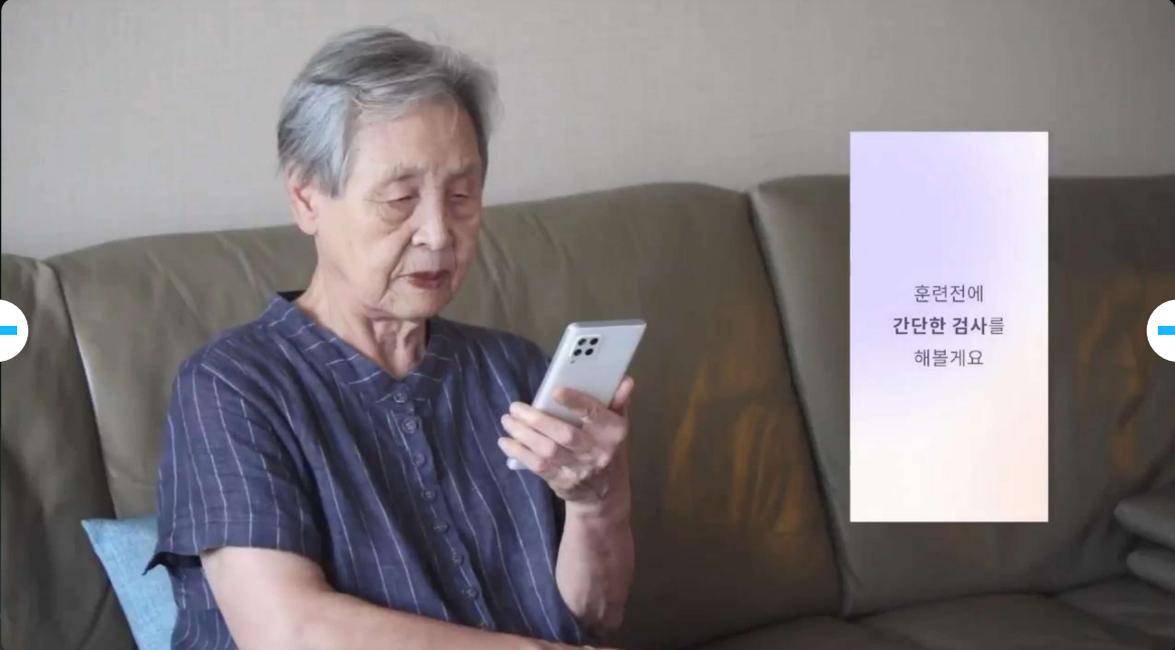
브랜드 K
당신이 챔피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기술
생체기반 AI 분석기술



Air-inflation of vest can be remotely contro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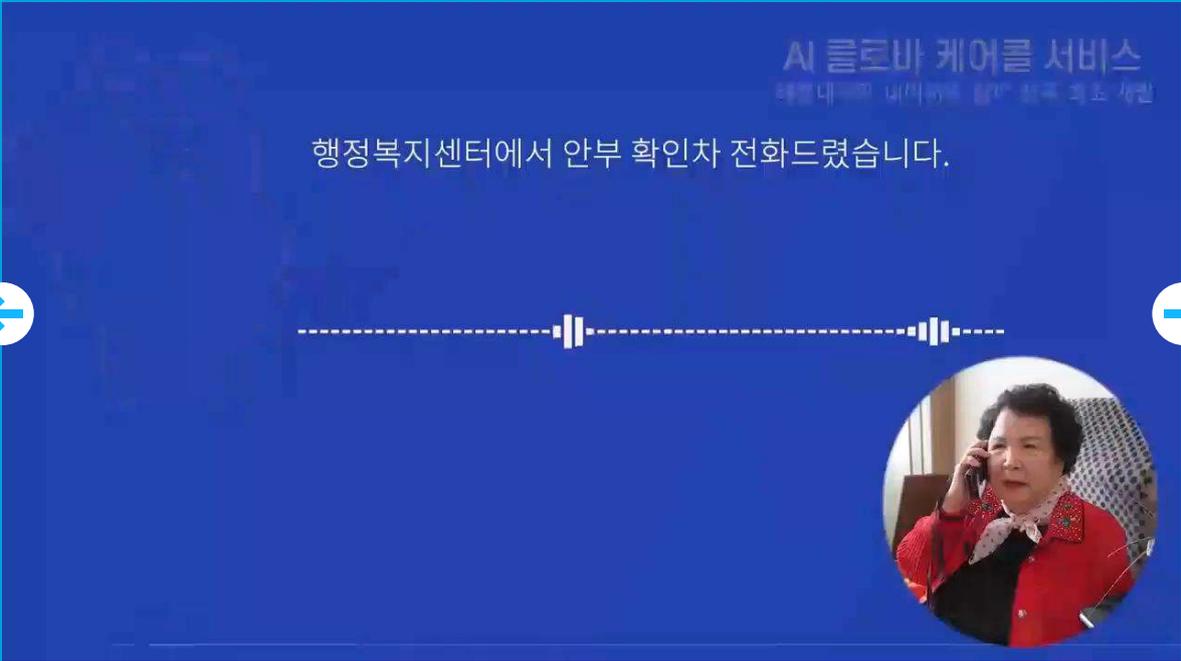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기주입식 조끼 컨트롤 가능

불안증 감소 스마트 조끼



훈련전에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 및 인지훈련 DTx



비대면 재활 훈련 시 스마트 글로브

3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_국정과제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0대 국정과제)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 보건의료 전략기술 집중육성

-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
-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 바이오헬스 글로벌 리더 위상 확립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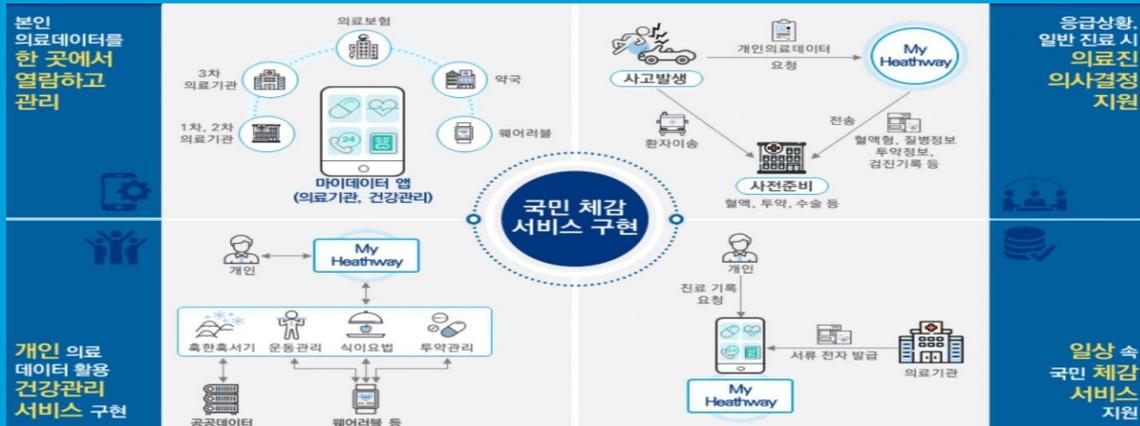
-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 의료데이터 기반 조성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 및 정밀의료 연구개발 지원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추진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_의료마이데이터

- 개인 주도 건강 My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가 관리 및 의료진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가능
-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체계 마련



(마이헬스웨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_원격의료

원격 의료의 유형

- ✓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p>원격 모니터링</p> <hr/> <p>의사가 환자의 데이터(맥박, 호흡, 혈압, 혈당, 심전도(ECG) 등)를 원격으로 모니터링</p>
	<p>원격 협진</p> <hr/> <p>원거리 의사-의사(의료인) 간 진료기록 전송 자문 혹은 화상 협진</p>
	<p>원격 진료(비대면 진료)</p> <hr/> <p>의사와 환자 간 화상, 전화, 채팅,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찰, 상담, 처방</p>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_원격의료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격협진 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사업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제공, 의료취약지 대상 의사-의료인간 협진 추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2005년 교정시설을 시작으로, 2015년 군부대, 원양선박, 2016년부터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시범사업이 추진 중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020년 2월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이후 2024년 4월 전면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취약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적정 진료 및 응급 이송 판단이 긴급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간 협진 추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보건소 의사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인간 시범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택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 및 진료 제공 재택의료시범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1형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과 상담을 제공하며, 인술린 투입량 조절 등 일부 진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1차의료기관 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원격모니터링하고 이상 시 방문간호사 진단 및 처방 제공 규제샌드박스(휴이노): 시계형 심전도 착용 심장질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이상 시 비대면 상담 및 내원 안내 서비스 제공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_고령가구 스마트케어 사업

노인가구 돌봄-의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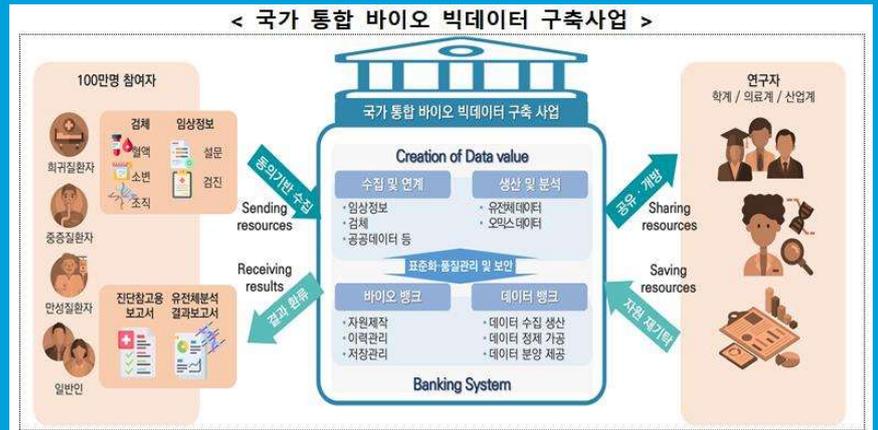
- **돌봄과 의료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케어 모델 개발, 실증**
* 응급 안전·인지정서 서비스('21.11~'22) → 건강관리(식사·운동) 서비스('23)로 연차별 확대
※ 지역 의료기관 참여 실증 시나리오 개발검증
- **다양한 고령층(소득/성별/연령/건강수준별) 180가구**
* 소득: 공공/민간, 건강수준: 질환개/2개 이상 등
-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 지속 제공('21~)하여 돌봄의 연속성 보장**



- **(임상적 효과성 검증) 스마트 케어 서비스 제공 전-종료 후, 설문+병원검사결과 전후 비교 또는 추이분석 등**
- **(돌봄 효율성 검증) 스마트 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성, 건강편의, 돌봄종사자 효율성 등을 추정**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현황_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



4 디지털헬스케어 우려와 가치

디지털헬스케어의 우려

- ✓ **AI 알고리즘의 편향**: 인종, 장애인, 소수자 등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편견 발생
- ✓ **오류에 대한 책임성**: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오류에 대한 책임성 소재 규명 어려움
- ✓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의 개방으로 부터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 가능성
- ✓ **해킹 등 보안 불안**: 적대적 해킹이나 데이터 오염에 취약
- ✓ **인력 대체**: 의료분야 일자리 AI 노출 지수 높아 대체 가능성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



디지털헬스케어의 우려_형평성 관련 특징

- 1) 취약층에게 접근성 더 취약
- 2) 디지털 정보격차
- 3) 데이터 바이어스

취약계층에서도 저소득층(89.1%), 결혼이민자(86.7%), 북한이탈주민(84.4%), 장애인(82.9%), 농어민(80.7%), 고령층(79.3%) 순으로 낮은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가통계포털, 2022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 kihasa > file > download PDF

앱 기반 디지털 헬스의 형평성 제고 방향 고찰

천원짜리 진단서, “영문이라 10만원” 환자 속수무책

진단서 비용 들쭉날쭉... 병원 장사 앞에 국민들 '분통'
 복지부 상한액제 '무용지물'...과태료 규정 도입해야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밀의료 및 4P의료* 실현 및 의료비 절감 가능

* 4P 의료 : 예방(Prevention), 예측(Prediction), 맞춤(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

- ① (질병 예방·예측)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일상 속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질병 사전 예방·예측
- ② (개인 맞춤 서비스) 유전정보 등 개인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등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실현
- ③ (접근성 강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도서·산간 지역 및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
- ④ (전달체계 효율화) 의료기관, 보건소 등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을 지원하여 진료 연속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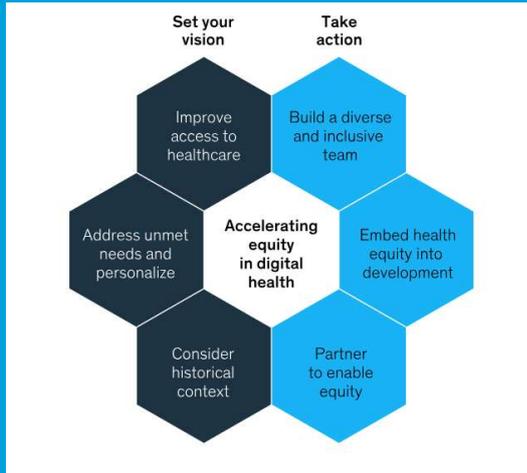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

	AS-IS	TO-BE
환자는...	평균적인 진료	초 개인화된 진료
병원은...	경험중심 적 진료	정밀의료 도입· 적용
기업은...	국내시장 중심	바이오 산업 글로벌 진출

30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사회적 약자 보호, 디지털 헬스케어 근본 가치”



- ✓ 의료 접근성 향상
- ✓ 미충족 의료 해결
- ✓ 역사적 맥락 고려



- ✓ 포괄적인 팀구성
- ✓ 개발에서 부터 형평성 고려
- ✓ 형평성을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

31

5 디지털헬스케어의 이주민 적용 방안

32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이주민을 수용국 의료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을 낮춰줍니다.
-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합니다

경제적, 비경제적 난민들이 의료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격 부여에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

WHO 유럽 지역의 2023년 세계 난민의 날: 난민과 수용 지역 사회를 위한 건강 포용 및 솔루션(2023.06)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경제적 난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35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임신한 난민을 위한 디지털 건강 도구를 설계하는 팀, NAM 상 수상

에 의해 스테파니 스티븐스, 웨일 코넬 의학

2023년 12월 12일



임신 합병증의 위험이 높지만 종종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임신한 난민 여성에게 디지털 건강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퍼스 간 협력이 국립 의학 아카데미 (NAM) 촉매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 세계보건기구(WHO)

레바논 시리아 난민의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인 WHO 디지털 정신 건강 개입

레바논 시리아 난민의 우울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WHO 디지털 정신 건강 개입 · 훈련된 비전문가 도우미가 제공하는 형식...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 > 기술

🔍 가 가

미 의료진들이 공감하는 것..."편견없는 AI의료기기 개발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 조행만 객원기자 · 🕒 입력 2021.07.24 16:23 · 🕒 수정 2021.08.03 14:44 · 💬 댓글 0 · ❤️ 좋아요 0



편견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가로막는 주요 장벽
AI는 실제 병변보다는 편견 통한 디지털 표지로 판단
AI 알고리즘 교육에 쓰이는 데이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편견 없는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수집이 AI 학습 시스템에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가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 미 시카고 대학 연구진은 암 이미지 분석을 위한 AI 모델이 편견의 지름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적용 방안



NYC는 NYCHA 주민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시립 광대역 프로그램인 'Big Apple Connect'를 출시합니다.

뉴욕시는 Big Apple Connect를 출시하여 미국 최대의 무료 시립 광대역 서비스인 NYCHA 주민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2022. 9. 19.



Increasing Digital Health Literacy in Refugee Communities

39

Final Thought

디지털헬스케어가 **모든 치료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잘 작동하도록
정책에 대한 관심과 개입 필요



40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재외한인의 건강 경험과 초국적 모빌리티

송지영 연구교수 · 정종민 연구원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재외한인의 건강경험과 초국적 모빌리티

송지영, 정종민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 목적



01

재외한인의 삶에 주목

구술생애사에서는 구술자 개인의 정체성, 시대감각, 사회인식, 역사인식 등이 드러나며 당대의 문화를 알 수 있다(윤택림 2019: 177).

02

생애사 연구의 확장 가능성 제시

-근로생애사(신동균 2008, 2013), 건강생애사(문영민, 2023), 직업생애사(박성희, 2009; 이병준, 2015; 한현우 2015) 등
-생애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제의 무한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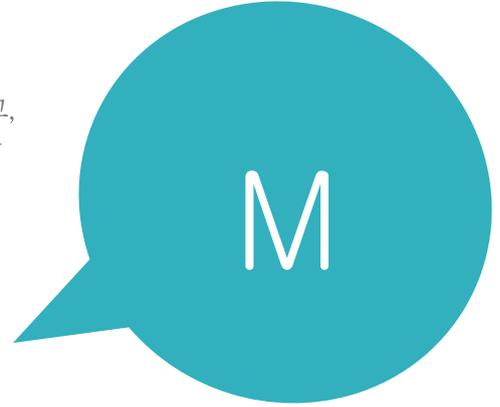
03

통시적인 건강 경험 연구

구술자 및 인터뷰 정보

M

1960년 서울 출생. 1983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뉴저지에서 국제학교의 미국 학력 인증 및 교육 컨설팅 사업 중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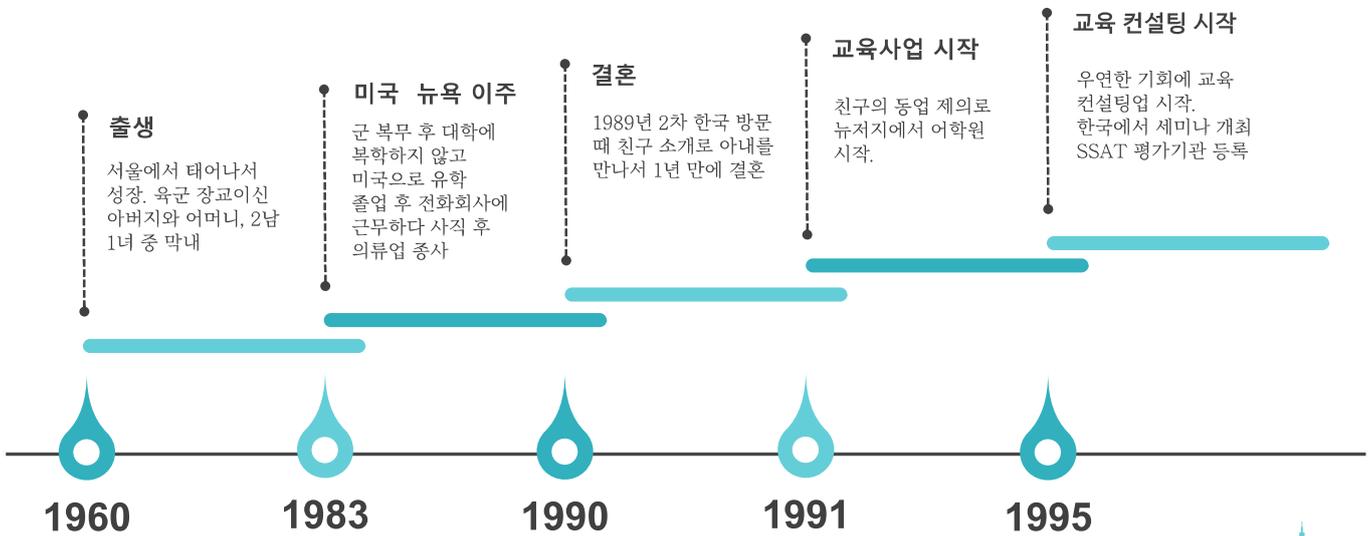
2024년 5월 1, 2, 4, 8일 1.5-2시간씩 4회 실시

재외동포현황 총계 (2023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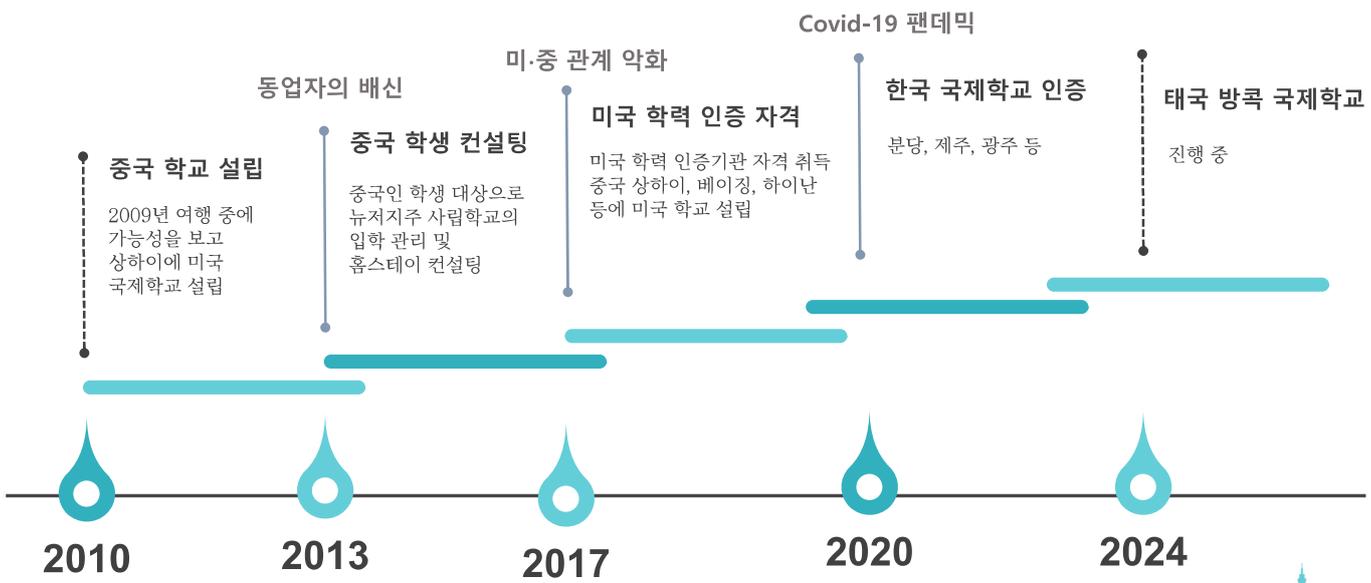
지역별	연도별	2017	2019	2021	2023	백분율(%)	2021년 대비 증감율(%)
	총계	7,439,579	7,493,587	7,325,143	7,081,510	100	-3.33
동북아	일본	818,626	824,977	818,865	802,118	11.33	-2.05
	중국	2,548,030	2,461,386	2,350,422	2,109,727	29.79	-10.24
	소계	3,366,656	3,286,363	3,169,287	2,911,845	41.12	-8.12
	남아시아태평양	557,791	592,441	489,420	520,490	7.35	6.35
북미	미국	2,492,252	2,546,982	2,633,777	2,615,419	36.93	-0.70
	캐나다	240,942	241,750	237,364	247,362	3.49	4.21
	소계	2,733,194	2,788,732	2,871,141	2,862,781	40.43	-0.29
	중남미	106,794	103,617	90,289	102,751	1.45	13.80
	유럽	639,584	687,059	677,156	654,249	9.24	-3.38
	아프리카	10,853	10,877	9,471	10,455	0.15	10.39
	중동	24,707	24,498	18,379	18,939	0.27	3.05

- 2022년 12월 말 기준 약 708만 명이 있으며, 이 중 36.93%가 미국에 거주 중이다. 미국에는 LA에 23.14%, 뉴욕에 10.64%가 살고 있다.

구술자 M 생애 연보



구술자 M 생애 연보



M의 초국적 모빌리티

가족

아버지의 베트남전쟁 참전, 영국에 근무한 형,
미국에 유학한 누나

우연적인 인적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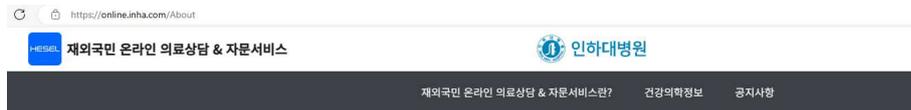
사업의 전환점에서 주위의 권유가 있었음

교회 친구

해외 이주를 가능하게 하도록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함

기독교 신앙

우연적인 인적 네트워크 및 이동의 해석



재외국민 온라인 의료상담 & 자문서비스란?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이용가능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이용이 불가 합니다.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web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 되나요?

- 크게 의료상담과 의료자문으로 구분 됩니다.

구분	의료 상담	의료 자문
제공 서비스	1. 가능성 있는 질환과 필요검사 안내 2. 응급 및 중증 가능성 상담 3.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안내 4. 전문의약품 처방(*가능대상자에 한함)	1. 현지 병원에서 검사/진단 받은 기록 업로드 2. 업로드된 기록을 보고 2차 소견 제공
제공 방식	화상 / 전화 / 텍스트(게시글)	텍스트(게시글) : **확정 후 5일 이내 답변
서비스 시간	한국시간 기준 월 ~ 금 오전 8시30분 ~ 오후 4시	24시간

*출국 전 인하대병원에서 진료 본 환자 중(최근 2년 이내 인하대병원 건강검진센터 이용자 포함),
상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처방은 불가능하며, 정신과적 질환과 소아과적 질환은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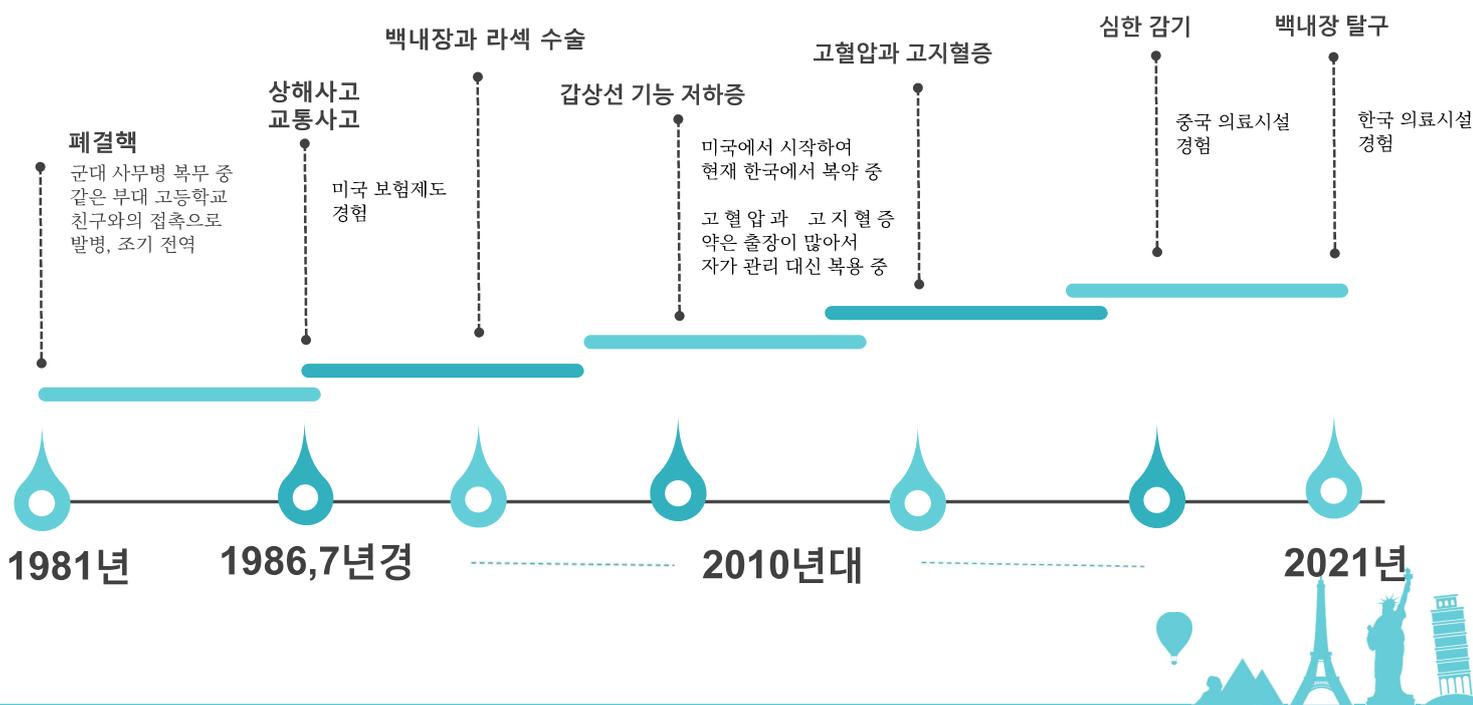
*의약품 처방 후 의약품 구입, 현지료의 배송은 이용자가 진행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 통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서비스의 답변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요금 없이 재 자문의리 가능합니다.



건강 경험

주요 질병 경험



건강 활동 차이



- 의료비가 비싸다
- 정기적인 검진
- 예약이 필요하다
- 의사와의 면담시간이 길다
- 걷기, 볼링, 하이킹 등 활동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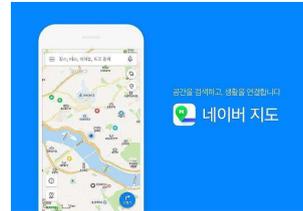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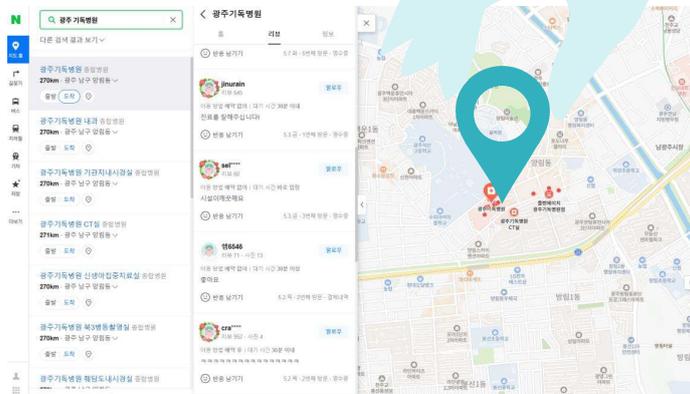
- 의료비가 저렴하다
- 1차 의료기관에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의사와의 면담시간이 짧다
- 걷기와 볼링



가장 가까운 병원 중 후기가 좋은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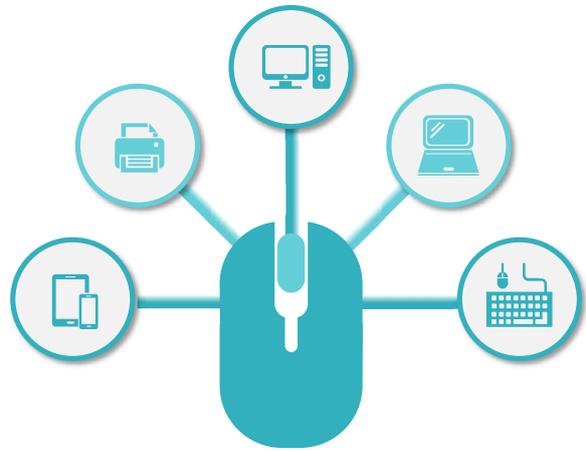


- 미국 주치의 제도로부터의 영향
- 의사 신뢰





인적
네트워크



디지털
네트워크



백내장 인공수정체 탈구 수술



분당
안과 병원
인터넷



서울
강남성모병원
지인 추천



서울
김안과
분당 안과병원 추천



한국의 디지털 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가구 컴퓨터 보유율 81.0%
가구 인터넷 접속 99.97%
인터넷 이용율 94.0%



스마트폰 사용률 98.6%
모바일 인터넷 이용 93.5%

SNS 이용 66.4%
인스턴트 메신저 97.7%



텔레비전

- 미국으로 이주하여 라디오를 통해 한국 소식을 들음. 뉴욕에는 한국 라디오방송국이 있었음
- 음악을 좋아했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듣지는 않음

라디오

- 회현동에서 살던 어린 시절 주인집에 TV가 있어서 함께 시청. 캐비닛에 넣어두었다가 미국 드라마 할 때만 꺼내서 봄
- 성수동으로 집을 지어 이사 온 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일제 SONY TV를 보내주심
- 컬러 TV방송이 시작되면서 권투경기를 보는데 피가 빨강게 보였던 기억이 남
-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비디오를 대여해서 한국방송을 시청
- TV는 필요한 프로그램만 보는 편이며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는 않음

- 중학교 무렵 전화기 들어옴. 옆집과 같이 공유
- 미국에서 유학 중 무선통신기 처음 사용
- 어학원을 운영 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휴대폰을 사용함. 휴대폰, 카폰, 스마트폰 등 사용
- 인터넷 메시지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비용 문제로 인터넷 전화, 선불 카드 등을 주로 사용함
- 현재 뉴저지에 있는 부인과 위챗을 이용하여 오전, 오후 화상통화 중
- 스마트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에 등록된 번호만 받고 SNS로 주로 연락하는 편. 최근에는 6개월마다 전화번호를 정리함(삶을 단순화시키는 중)

전화

컴퓨터

- 유학 시절 처음 XT 컴퓨터를 접함. 베이직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수업을 이수함.
-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어학원 운영 할 때부터 MS 워드와 엑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함
-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컨설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함. 리서치와 이메일을 주로 사용
- 이메일 주소를 10개를 쓰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중
-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정리에 능숙한 편(구글, 노터빌리티, 카카오톡 활용)

M의 건강경험과 초국적 모빌리티



“건강은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은 긍정적인 삶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라고 보고.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가 빨라요.”

“삶이 좀 심플하죠. 내려놓고 다른 걸 쳐다보게 되니까. 이거 안 된다고 불들지 않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걸 존중을 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 갖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멘탈 강한 이유가 모든 일이 건달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건데,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참고문헌

- 문영민, 2023,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3): 93-122.
박성희, 2009, 직업생애사에 기반한 고령층 여성의 고용가능성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IJACE 12(4): 61-82.
신동균, 2008,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8(4):1-27.
신동균, 2013,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5-32.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 방법론, 아르케.
이병준, 2015, 여성 NGO 평생교육기관장의 직업생애사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1(3): 53-83.
한현우, 2015, 인문계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생애사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5(6): 575-593.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주민 무료진료기관의 비대면 의료 활동: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례

김일환 원장
나주시 봉황가정의학과의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주민 비대면 진료 활동과 과제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례

코로나 기간 진료형태의 변화

- ▶ **코로나 발병 : 제1급 신종 감염병**
광주지역 내 확진자 발생 : 2020년 2월 4일 -> 진료소 진료 중단
- ▶ **확진자 1명만 발생해도 사무실이나 종교시설 병원들 폐쇄 : 섣다운**
- ▶ **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 투약 중단에 대한 대책 필요**
보건소 부속건물,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감안
- ▶ **비접촉진료 시작 : 재진환자 · 만성질환자 중심 / 의학과 / 실내출입 통제**
최소 진료인원 6명으로 구성 : 접수1, 사례관리자1, 통역2, 의사1, 약사1



진료 통계 : 현관 진료 기간

기 간	주말진료	찾아가는진료	긴급구호	예방접종
2020년	34회 / 576명		마스크, 손소독제	독감 150
2021년	50회 / 983명	8회 / 637명	마스크, 손소독제	독감, 파상풍 51
2022년	22회 / 403명	1회 / 90명	구급약품 : 500 set 긴급조제 : 231명	

년도별 역점 활동

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역점	센터 일요진료 재개	찾아가는 진료	긴급 구호
특징	사무국장 부재 주무관청에서의 압박 현관 유리문 통해 비접촉진료 예방접종 / 백신 포비아 KF마스크 & 알콜소독제 나눔	시간, 거리적 제약: 접근성 난관: 보건소 승인 거절 방호복 착용 예산 마련 봉사단 참여	코로나 절정기 3월한달: 1,100만명 확진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 타이레놀도 품귀
통계	센터진료 : 34회 /576명	전남 5회 - 467명	비상구급약품-500세트
	독감접종-150명	광주 3회 - 170명	긴급조제약품-231명

찾아가는 진료

시간·일자	대상자 중심 : 야간, 연휴, 주말
장소·거리	대상자 중심 : 나로도, 돌산 신기항, 집단거주지, 공장, 숙소, 축구장
진료소	KOFIH 이동클리닉 차량 - 진료실 공간, 조제실 공간 으로 사용
1차진료	진료후 전문약조제 / 근골격질환, 피부질환, 소화기, 호흡기등
비상약품	구급상자 전달 사업 : 일반약품6종, 위생용품
예방사업	구충제복용, 불소양치용액, 결핵검진
협력단체	이주민지원단체, KOFIH, 대한결핵협회, 전라남도의회
봉사자	센터(센터장,의사,약사,사무간사,교육팀), 시니어봉사단
예산마련	쇼셜펀딩 (카카오, 네이버) - 사회적 관심을 환기, 구급상자 마련



긴급 구호 활동 2022년

코로나19 한국 월별 확진자와 사망자



일 자	구급약품 포장	긴급약품 조제	전달 지역
2월 13일	200 세트		나주시 보성군 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2월 20일	200 세트	110 명	
3월 13일	100 세트	90 명	
3월 20일		31 명	
합 계	500 세트	231명	

- ▶ 즉각적인 긴급대응을 위해 약품 배송을 도와준 분들
- ▶ 코로나감염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현장에 직접 달려간 지역의 활동가 분들



취약성

민간단체 외국인진료소 현황 (2023년)

지역	진료소	연 진료인원	국가	진료시간
광주	광주이주민건강센터	3,463명 (의.치,한)	28개국	매주 일요일 13:00~17:00
	고려인마을 진료소	2,296명 (의 중심)	고려인	매주 화요일 19:00~20:30
전남	목포 카톨릭문화회관	99명 (의학과)	3개국	월 1회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외국인 무료진료소- 전남지역

장 소	전남 넓은 분포지역을 단 한곳의 진료소에서 감당 : 접근성 한계
참여자	의료인들 토요일도 진료 : 휴일 반납하고 봉사 참여 쉽지 않음
시 설	무료진료소 의료시설은 열악
서비스	단순한 1차진료에 국한, 중증질환이나 입원수술 필요한 환자 연계가 안됨

대표적인 **이주민 의료보장제도**

제도권 밖 이주민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지원 사업	국비 25% 광역지자체 75% 부담	공공병원 중심
민간단체	공제회 의료비 지원	상호부조 시스템 (회원제)	협력병원과 연계
	긴급의료비 지원	지정기탁 사업	기업체, 모금회

- ▶ “희망의 친구들” 이주민 의료공제회 : WeFriends Aid
의료비 지원금액 : 월 3,600만원 정도
- ▶ “희년의료공제회 : 일반형 / 계절근로자용
계절근로자용은 차별적 운영-가입기간 제한, 병원선택 제한 두지 않음

취약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 -전남

지자체	예산지원 (보건복지부사업외), 공모사업	?
의료기관	치료비 감면	? 개별적인 수준
의료공제회	의료비지원 연계	?
민간단체	2차진료 필요시 의뢰기관	?
무료진료소	목포지역에 1곳	매월 1회(30명내외) 진료

- ▶ 이주민을 인구절벽 해소의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됨
- ▶ 소외와 차별없는 이주민의 건강과 웰빙증진에 관심

의료인들의 공감과 사회참여의 실천이 필요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